

KOTRA 국가정보

멕시코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멕시코(Mexico)
면적	1,964,375 km ²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 Book, 2020년)
수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 ^é xico / CDMX)
민족(인종)	메스티소(아메리카인디언-스페인인 혼혈) 62%, 아메리카 인디언 21%, 아메리칸 7%, 기타(대부분 유럽 계) 10% (2012년 추정치이며 현시점 기준, 멕시코는 민족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언어	스페인어 93.0%, 스페인어-토착어 혼용 5.7%, 토착어 1.3%
종교	카톨릭 78%, 개신교 11%, 무교 8%, 그 외 기타 3%
기후	멕시코는 일반적으로는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이나, 지역 및 고도에 따라 다르다. 해안지대는 열대기후로 고온다습, 중부 고산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온대성 기후, 나머지 국토는 아열대 기후를 보인다.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경우 연중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며, 우기인 5~10월에는 특정 시간대(주로 저녁)에 비가 내린다.
국가원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일명 암로, AMLO), Andrés Manuel Lpez Obrador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01-26 (자료원 : 주 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멕 문화 협정	1966-04-29	문화, 예술 교류 등	
한-멕 무역 협정	1966-12-12	경제 통상 분야 교류 확대 등	
한-멕 사증면제 각서	1979-03-05	관광목적의 입국, 기한 내 체류에 대한 사증 면제	
한-멕 항공 협정	1988-07-21	합의된 항공기의 영공 통행, 운수권 설정 등	
한-멕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1989-11-09	국가 개발정책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장려, 촉진	
한-멕 이중 과세 방지 협약	1994-10-06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	
한-멕 범죄인 인도 조약	1996-11-29	청구국 영역 안에서의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	
한-멕 외교관관용 사증 면제협정	1997-06-27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	
한-멕 투자 보장 협정	2000-11-14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최혜국 대우, 수용(Expropriation)의 제한 및 보상, 송금 보장 등	
한-멕 세관 협력 협정	2005-09-09	세관 상호지원,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 구축 등	
한-멕 형사 사법 공조 조약	2007-01-18	증거 및 진술의 취득, 사람 및 물건의 소재파악, 서류 송달,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증거물의 제공 등	

한-멕시코 원자력 협력 협정	2012-06-0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	
-----------------	------------	--------------------	--

한국교민 수

11,897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9))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발행 (2012. 1.)

2012년 1월 26일 산업통상부와 우정사업본부와 멕시코 우정국과 함께 한국-멕시코수교 50주년 기념우표 2종을 발행했다. 기념우표는 국제적 멸종위기인 ‘귀신고래(Gray Whale)’를 소재로 했다.

2) 한국-멕시코 전자정부 협력 (2015.10.)

2015년 10월 양국 정부가 한-멕시코 전자정부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한국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보안시스템, 치안관리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양국 전자정부 분야 상호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였다. 멕시코는 전자정부 수출이 유망한 국가로, 한국은 과거 멕시코에 IT 협력센터를 운영해 모바일 민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공동보안 컨설팅, 전자여권 시스템 등을 수출한 전력도 있다. (자료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3) 멕시코 지진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2017. 9.)

2017년 9월 8일, 19일에 발생한 멕시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현금 100만 달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멕시코 정부 측은 멕시코 국민과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뜻깊은 연대감을 표명해준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

4) 한국의 날 제정 (2019. 5.)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날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캄페체시 및 메리다시에서 조례로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각각 지정했다. 2019년 5월 2일 캄페체 시장이 한국의 날이 제정되었음을 선포했다.

5) 서초구청-과우테목 구청 자매결연협정 (2020. 1.)

2020년 1월 6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과 멕시코 멕시코시티 과우테목 구청 간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핵심 도시 간 협력을 약속하였다.

경제

1) 제3차 한-멕시코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2016. 9.)

한국 중소기업청과 멕시코 국가창업원(INADEM)은 2016년 9월 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제3차 한-멕시코 중소기업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청과 멕시코 국가창업원(INADEM)은 멕시코 내 성장이 유망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한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R&D)·금융·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토탈 패키지(Total Package) 마련, 양 기관 간 파일럿(Pilot)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 밖에도 양측 간 합의된 협력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지 인프라) 미국수출 배후기지인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창업보육(Business Incubator), 물류 및 사후관리(A/S) 기능이 결합된 한국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정책연구) 양국 간 중소기업 정책 비교분석, 중소기업 상호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 (국제협약체) 태평양 동맹국(Pacific Alliance)과 한국 간 중소기업 분과 구성·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안건 논의·발굴
(자료원: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2)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2018.10.)

2018년 10월 10일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서울에서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멕시코와 처음 개최하는 고위급(부총리급) 경제협력위로 양국의 경제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수출, 투자, 신산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 측은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지원한 멕시코 측에 사의를 표시하고, CPTPP에 대한 정보공유, 우리 기업의 애로 전달 및 해결 노력을 촉구하였다. 양측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호무역주의 대응) G20, IMF 등 다자무대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 등 공조를 강화하여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

- (미래성장도모) '12년부터 진행된 KSP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멕시코 PPP 사업 등 투자기회 및 경제특구 제도 활용, 국제조세, 금융통합 분야 등 디지털 시대의 기회 및 도전과제 점검

- (중남미 시장 교두보 마련)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멕시코 측의 지지 확보

(자료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3)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 투자 성과발표회 개최 (2018.11.)

2018년 11월 27일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상일)은 멕시코 진출 지상사협의회와 함께 한-멕 경제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주지사, 멕시코 건설협회 회장, 한국 및 멕시코 주요기업, 언론인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4) '한국의 경제발전 정책 경험' 세미나 개최 (2019. 6.)

2019년 6월 4일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상일)은 멕시코 상원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정책 경험'을 개최했다.

5) 한-멕시코 경제협력 세미나 (2019. 9.)

2019년 9월 19일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상일)은 대외무역위원회(COMCE), 이베로(IBERO) 대학과 공동으로 개최된 한국과 멕시코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주요 한국 대기업을 소개 및 이들 기업이 약 60억 불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6)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멕시코 재무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0.5)

2020년 5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 기업이 멕시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 재무부와 1조 1천억원(미화 10억 달러)의 저금리 장기 신용을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멕시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국내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2019년 4억 달러에서 지난해 37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건설·플랜트 업계의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 중인 멕시코 정부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최근 멕시코 정부가 26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특허청, 멕시코에 해외지식재산센터 신설 (2021.06.01)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멕시코시티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신설하고, 멕시코 현지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상표·디자인 출원이나 위조품 단속, 권리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작성 등을 위한 현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지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원: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및 일간지)

문화

1) 한국 문화원 개원 (2012. 3.)

멕시코시티 중심부인 폴랑코 지역에 한국 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주멕시코 한국 문화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한글 교실과 더불어 음악 강습실, 시청각실, 요리 강습실 및 도서관, 영상관 등을 통해 멕시코 주민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다.

2) K-POP 아카데미 개최 (2016. 6.)

2016년 6월 6일,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에서 2016 K-POP 아카데미 과정이 개최됐다. 해당 과정은 K-POP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국내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알려지자, 공식 페이스북 북 페이지에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문의가 쇄도했으며, 본 접수가 시작되자 정원의 3배수가 넘는 인원이 참가 신청을 했다.

3) 멕시코 의회-아리랑 TV 방송교류 약정 체결 (2017. 2.)

2017년 2월 15일 멕시코 의회방송(Canal del Congreso)과 아리랑TV는 방송 분야 협력을 위한 방송교류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멕시코 상원 아시아태평양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떼오필로 토레스 고르소 상원의원 및 전비호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 상하원 합동 방송위원회 위원장인 다니엘 가브리엘 아빌라 상원의원, 블랑카 릴리아 이바라 의회방송 사장, 알폰소 게레로 아리랑TV 멕시코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아리랑TV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의 역사, 유적지 문화재 등을 소재로 멕시코 의회방송의 다큐멘터리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통일 강연회 개최 (2019. 5.)

2019년 5월 22일(수)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가 주최한 통일 강연회가 웨라톤 호텔에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상일 대사, 황원균 미주지역 부의장, 오병문 중미카리브협의회장, 유영준 한인회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통일 강연에 이어, 평화통일이란 주제에 대한 질의, 응답 그리고 기념촬영 및 만찬 등이 이어졌다.

5)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 한국관 개관 (2019.12.)

2019년 12월 5일 주멕시코한국대사관(대사 김상일)과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 내 한국실 확대·재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멕시코 국립문화박물관 내 한국실은 중남미 유일의 한국문화전시실로, 지난 2000년 설치 이후 2015년 한 차례 확장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박물관 내 중국실과 일본실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작품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공간을 더욱 확대(71㎡ 추가 확장)하고 전시품을 보완(기존 110여 점 외에 36종 49점 추가)하여 2019년 12월 5일부터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6) 멕시코 육공군간호사관학교 나이팅게일 선서식 참여 및 마스크 기증(2020. 8.)

2020년 8월 29일(토) 주멕시코한국대사관(대사 서정인) 국방무관은 주재국 국방부 예하 육공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다음날 진행된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주재 무관단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최우수 졸업생도에게 대한민국 육공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 정의숙) 상장을 수여하고 대사관에서 기증한 국내 KF94 마스크를 학교 주요인사에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계획되어 있던 한-멕시코 양국 사관학교 교관 및 생도들의 상호방문과 훈련교류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번 행사 참여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다.

7) 제1회 한 멕시코 e스포츠 대전 (2021.6)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우리 게임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게임을 통한 양국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e스포츠 대전을 개최했다. 멕시코에서도 인기가 있는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카트라이더'에 현지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까지 총 세 종목으로 치러졌다.

멕시코는 게임 인구 3억 명이 넘는 중남미를 선도하는 시장이어서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문화원은 설명했다.

8) 멕시코 나야리트대 '멕시코한국학연구소' 개소 (2021.6.)

2021년 6월 29일 멕시코의 첫 한국학연구소가 개소했다. 앞으로 한국학 정기 학술지 발간과 도서 출간, 연례 국제학술대회와 월 1회 콜

로키엄 개최 등 풍성한 학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학 인재 양성에 힘쓰고 멕시코와 중남미 한국학 네트워크도 구축하며 지역 내 한국학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및 일간지)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2.11	2.13	-0.14	-8.5	
명목GDP (십억\$)	1,227.06	1,253.9	1,250.17	1,076.16	
1인당 GDP (PPP, \$)	19,721.26	20,257.83	20,447.89	18,833.08	
1인당 명목 GDP (\$)	9,287.84	9,686.51	9,946.03	8,346.7	
정부부채 (% of GDP)	45.73	44.8	44.47	52.27	
물가상승률 (%)	6.04	4.89	3.63	3.15	
실업률 (%)	3.42	3.28	3.48	4.71	
수출액 (백만\$)	409,432.6	450,712.7	460,603.7	416,999.4	
수입액 (백만\$)	420,394.6	464,302.4	455,241.6	382,985.9	
무역수지 (백만\$)	-10,962	-13,589.7	5,362.1	34,013.5	-
외환 보유고 (백만\$)	172,801.8	174,609.09	180,749.5	195,667.2	
이자율 (%)	7.25	8.25	7.25	4.25	
환율 (자국통화)	18.92	19.24	19.26	21.5	

<자료원 : IMF, 세계은행, 멕시코 통계청, 현지언론 종합>

경제 동향

2020년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은 팬데믹으로 8.5% 하락하였으나, 2021년 멕시코 경제는 정부의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 노력으로 GDP 연간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은 지속적으로 대 멕시코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멕시코 교역량 중 수입은 총 3,831억 9,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8% 감소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총 4,176억 7,000만 달러로 2019년보다 9.3%가 줄었다.

2021년부터 경제 활동 정상화와 내수 소비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21년 멕시코 연간 수출입 성장률은 각 수출 19.4%, 수입 32.8%로 집계된다. 대미 수출 품목(자동차, 기계류, 전자기기 등)의 멕시코 제조 여건 불안(반도체 부족 등)으로 2분기 회복세에 비해 소폭 감소한 추세다.

2022년 경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손꼽을 정도로 코로나의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년 12월 기준, 오미크론 등의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와 보건당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경제 봉쇄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현재 2021년 12월 기준 멕시코 GDP는 5.4%로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당초 6%대 마감 전망치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급등에 의한 것으로, 21년 12월 기준 인플레는 7.63%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 중앙은행은 12월 16일 5.0%→5.5% 금리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2021년 1~10월 생산지수 집계결과, 멕시코 주요산업 분야인 제조업(9.7%), 건설(8.6%), 광업(1.7%)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제조분야 중점 품목인 자동차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생산 전망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GDP 전망은 OECD 기준 3.3%로 멕시코 제조 분야의 주요 이슈인 철강 생산 회복, 자동차 반도체 수급과 물류 병목 현상 해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32,257,134,301
2	캐나다	18,505,560,375
3	독일	8,466,603,697
4	중화인민공화국	8,391,712,405
5	일본	5,314,579,489
6	스페인	4,898,007,260
7	브라질	4,660,548,723
8	대한민국	4,117,267,223
9	인도	3,836,113,930
10	콜롬비아	3,653,991,25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63,476,084,705
2	캐나다	19,594,826,725
3	중화인민공화국	9,679,529,019
4	독일	8,125,122,618
5	브라질	5,501,515,492
6	일본	5,428,340,289
7	스페인	5,413,782,073
8	대한민국	4,852,582,369
9	인도	4,400,661,185

10	콜롬비아	4,304,577,534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78,371,682,864
2	캐나다	20,485,976,508
3	Nor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nes	12,695,821,310
4	중화인민공화국	9,254,427,181
5	독일	9,114,934,143
6	Other Asia, nes	7,091,847,056
7	대한민국	6,045,555,594
8	일본	5,687,052,683
9	스페인	5,648,271,263
10	브라질	5,447,068,98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45,361,799,047
2	캐나다	15,854,473,336
3	중화인민공화국	9,916,920,542
4	Rest of America, nes	8,744,788,547
5	독일	8,465,763,291
6	대한민국	6,807,123,673
7	일본	5,267,724,916
8	Other Asia, nes	4,942,925,906
9	Areas, nes	4,727,738,544
10	영국	4,726,692,44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00,252,885,836
2	중화인민공화국	74,385,339,749
3	일본	18,553,040,935
4	독일	17,119,984,572
5	대한민국	15,969,853,994
6	캐나다	10,892,773,909
7	말레이시아	8,294,119,840
8	Other Asia, nes	7,559,506,825
9	타이	6,770,864,617
10	브라질	6,410,857,89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23,557,770,527
2	중화인민공화국	85,076,271,585
3	독일	19,977,486,697
4	일본	18,813,145,082
5	대한민국	17,154,049,006
6	캐나다	11,340,169,008
7	말레이시아	9,611,676,973
8	Other Asia, nes	8,458,232,259
9	브라질	7,814,409,339
10	이탈리아	6,958,407,22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11,006,667,532
2	중화인민공화국	84,400,418,498
3	독일	18,929,685,013

4	일본	18,605,051,714
5	대한민국	18,025,268,466
6	말레이시아	11,888,537,449
7	캐나다	10,892,715,254
8	Other Asia, nes	9,430,137,649
9	브라질	8,364,484,185
10	타이	6,344,359,47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73,062,808,272
2	중화인민공화국	75,461,545,524
3	대한민국	15,146,128,088
4	독일	15,103,207,928
5	일본	14,483,279,057
6	말레이시아	11,083,711,061
7	Other Asia, nes	8,880,318,767
8	캐나다	8,676,346,282
9	베트남	6,692,126,501
10	브라질	6,320,324,73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1,887,489,672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6,952,857,444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0,087,364,836

4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7,226,313,635
5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5,976,905,087
6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212,068,920
7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0,480,122,750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 1,500cc 이하인 것	8,588,414,023
9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7,305,789,921
10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6,872,281,86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5,619,688,308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2,241,314,984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6,568,262,841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835,449,926
5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5,588,051,211
6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156,113,667
7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0,323,034,457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 1,500cc 이하인 것	10,125,657,485
9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9,880,628,496
10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000,740,45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5,131,794,232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6,401,757,474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1,098,990,129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697,552,400
5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7,773,287,444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095,465,676
7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0,927,909,235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0,454,286,448
9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10,209,449,108
10	854430	검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7,962,964,40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9,667,711,42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490,162,84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4,446,805,067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405,810,516
5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5,503,445,797
6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0,809,894,278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9,744,548,358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8,516,885,563
9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7,665,156,731
10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6,679,726,942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6,719,406,392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813,920,229
3	271019	기타	9,714,903,311
4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8,872,349,182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6,612,691,543
6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012,930,283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896,018,761
8	847170	기억장치	5,535,563,210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006,302,290
10	870829	기타	4,924,581,44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8,536,463,762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9,397,650,842
3	271019	기타	13,788,713,675
4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1,277,935,416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911,557,147
6	847170	기억장치	6,471,605,383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464,164,037
8	271121	천연가스	5,628,694,239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623,812,184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581,024,21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7,976,314,631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7,508,670,290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2,855,665,412
4	271019	기타	12,275,630,577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95,499,027
6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107,368,690
7	847170	기억장치	5,566,445,175
8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562,612,012
9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5,529,984,679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373,334,50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8,027,052,816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2,450,869,928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560,465,580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86,838,392

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079,168,734
6	271019	기타	5,594,128,964
7	847170	기억장치	5,075,840,373
8	271121	천연가스	4,447,905,123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4,431,392,284
10	901380	그 밖의 기기	4,365,083,918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11	4,407	6,526
2018	11	5,090	6,368
2019	11	6,160	4,767
2020	8	6,356	1,885
2021	10	7,065	3,20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1,316	493	822
2	6134	아연도강판	563	0	562
3	2140	합성수지	476	4	471
4	6133	냉연강판	295	0	294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351	23	328
6	8138	전산기록매체	325	17	307
7	8311	집적회로반도체	335	48	286
8	6132	열연강판	163	0	162
9	7112	펌프	235	30	205
10	7411	승용차	213	321	-10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1,355	450	905
2	6134	아연도강판	909	1	908
3	2140	합성수지	761	6	755
4	6133	냉연강판	575	2	573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422	23	399
6	8138	전산기록매체	381	16	365
7	8311	집적회로반도체	358	43	315
8	6132	열연강판	306	0	306
9	7112	펌프	267	22	245
10	7411	승용차	181	322	-14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2,168	-2,168
2	1190	기타금속광물	0	918	-918
3	7420	자동차부품	1,316	493	822
4	7411	승용차	213	321	-109
5	1160	아연광	0	307	-307
6	6221	동괴및스크랩	0	123	-123
7	8147	의료용전자기기	14	149	-136
8	7331	의료용기기	9	115	-107
9	1112	은	1	108	-107
10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9	43	-2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2,996	-2,996
2	1190	기타금속광물	0	855	-855

3	7420	자동차부품	1,355	450	905
4	7411	승용차	181	322	-141
5	1160	아연광	0	286	-286
6	6221	동괴및스크랩	0	197	-197
7	8147	의료용전자기기	12	156	-144
8	7331	의료용기기	12	122	-110
9	1112	은	1	99	-98
10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	95	-9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자동차 부품		
HS Code	300110, 300210 등	수입액('20/US\$백만)	21,933
수입관세율(%)	5~20	대한수입액('20/US\$백만)	1,053
선정사유	멕시코 완성차 제조기업 다수 진출, 유통 원활		
시장동향	내수 및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 진출 유리		
경쟁동향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진출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		
진출방안	USMCA 활용과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 부품 중심으로 진출 유망		
품목명 2	임플란트		
HS Code	8418, 8450 등	수입액('20/US\$백만)	8,499
수입관세율(%)	0~15	대한수입액('20/US\$백만)	1,982
선정사유	구강 질환 환자 전체 인구의 90%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치아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과 치과 시술 관련 관심 증가		
시장동향	가격보다 품질 안정성을 선호하여 프리미엄 시장이 크게 발달		
경쟁동향	유럽과 미국 수입 브랜드가 시장 주도		
진출방안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고품질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진출		
품목명 3	의료기기		
HS Code	9018, 9022 등	수입액('20/US\$백만)	5,016
수입관세율(%)	0~15	대한수입액('20/US\$백만)	36
선정사유	북미 및 중남미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기지		
시장동향	당뇨, 암, 심장질환 및 중추 신경 관련 만성질환 환자 많음,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장비 수요가 높음		
경쟁동향	글로벌 조립 공장이 멕시코 내 다수 있음		
진출방안	진단 장비와 미용 목적의 시술 기기, 3D 프린터와 같은 신기술 제품으로 시장 공략		
품목명 4	의약품		
HS Code	230910, 230990	수입액('20/US\$백만)	4,993
수입관세율(%)	0~10	대한수입액('20/US\$백만)	59
선정사유	북미 및 중남미 의약품 생산 및 수출 기지 역할		

시장동향	멕시코 인구 고령 가속화와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경쟁동향	국내외 유명 기업 제조공장이 멕시코 내 다수 있음		
진출방안	동등성 계약 제도를 활용, K-방역, 기술력 등 긍정적인 한국 이미지를 통한 마케팅 필요		
품목명 5	기초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0/US\$백만)	310
수입관세율(%)	10~15	대한수입액('20/US\$백만)	11.5
선정사유	개인 관리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음		
시장동향	기능성 제품과 蕪향, 蕪알코올, 蕪파라벤, 동물성 성분을 제외한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경쟁동향	영국,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		
진출방안	한국 제품의 기능, 품질, 디자인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의료(원격의료)
선정사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증가
시장동향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의학, 영양학, 심리학 등 건강 서비스 제공
경쟁동향	심리상담, 초기 진단 및 전문의 상담 등 솔루션 로컬기업 다수
진출방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 인터넷망 확장 등으로 원격의료 기기, 솔루션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 2	교육 (에듀테크)
선정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학습 조치 등으로 멕시코 내 에듀테크 분야 사용 증가
시장동향	신규 분야로 성장단계이며, 원격학습 조치로 온라인 교육 확대 추세
경쟁동향	국내외 기업이 있으며 해외기업이 시장 주도
진출방안	학교용 플랫폼 등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한 진출
품목명 3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프랜차이즈 분야 GDP 4.2% 차지, 요식업 인기
시장동향	프랜차이즈 창업 인기 품목, 요식업(31%), 서비스(17%), 퍼스널케어(12%)

경쟁동향	요식업의 경우, 다양한 글로벌 및 현지 브랜드가 있으나 한류 및 한국 라이프스타일 관심도 증가로 식문화 현지에서 큰 인기
진출방안	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 브랜드 중 현지 문화에 적합한 품목 선정 후 단계적인 진출 필요
품목명 4	물류
선정사유	멕시코 물류산업은 지리적 강점 및 정책지원 등 향후 추가 성장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
시장동향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달과 더불어 특히 육로운송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경쟁동향	육로운송, 해상운송, 철로운송 순으로 이용빈도와 중요성이 높으며 각 분야 운송기업 다수
진출방안	냉동 창고와 같은 멕시코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 진출 유망
품목명 5	한류콘텐츠
선정사유	다양한 한류 콘텐츠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한국 음식, 놀이, 문화, 제품 수요 증가
경쟁동향	주로 미국, 일본 콘텐츠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진출방안	SNS를 이용한 홍보 및 콘서트 등을 통한 시장 확대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멕시코-콜롬비아 ACE No. 33	콜롬비아	1994-06-13	1995-01-01	
멕시코-칠레 ACE N 41	칠레	1998-04-17	1999-08-01	
멕시코-EU FTA	EU 회원국	1997-12-08	2000-10-01	
멕시코-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FTA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2000-11-27	2001-07-01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04-10	2001-07-01	
멕시코-우루과이 ACE No. 60	우루과이	2003-11-15	2004-07-15	
멕시코-일본 경제협력협정	일본	2004-09-17	2005-04-01	
멕시코-볼리비아 ACE N 66	볼리비아	2010-05-17	2010-06-07	
멕시코-페루 ACE No. 67	페루	2011-04-06	2012-02-01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2011-11-22	2012-09-01	
멕시코-온두라스 FTA	온두라스	2011-11-22	2013-01-01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2011-11-22	2013-07-01	
멕시코-엘살바도르 FTA	엘살바도르	2011-11-22	2013-09-01	
멕시코-과테말라 FTA	과테말라	2011-11-22	2013-09-01	
멕시코-파나마 FTA	파나마	2014-04-03	2015-07-01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콜롬비아, 페루, 칠레	2014-02-10	2016-05-0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2018-03-08	2018-12-30	2018.12.30, 11개국 중 6개국(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발효 2019. 1. 15. 베트남 협정 발효 2020. 11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브루나이 미발효 상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미국, 캐나다	2018-11-30	2020-07-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개정한 협정

〈자료원 : 현지 언론자료 종합〉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멕시코-EU 개정 FTA(TLCUEM)	멕시코, EU 회원국	2020. 4. 28., 협정문 개정 관련 협상 타결. 각국 의회의 비준 및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멕시코-EU FTA를 개정한 협정
멕시코-영국 무역지속협정	영국	2020.12. 5. 무역 연속성을 위한 임시 협약을 맺고 자유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 시작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무역 연속성을 위한 협정
멕시코-에콰도르 FTA	에콰도르	2020. 1.31.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협의 시작	2022년 12월 타결 예정

〈자료원 : 현지 언론자료 종합〉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수입금지품목은 포식 어류, 마약, 유해 물질, 반사회 활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전사지 등이며 이들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

규제의 자세한 내용, 관련 절차, 변경사항은 연방관보(DOF)를 통해 공포된다.

○ 수입금지품목(HS 코드, 상품명)

0301.99.01 포식 어류

1208.90.03 양귀비

1209.99.07 마리화나(카니비스 인디카), 기타 종자용과 혼합

1211.90.02 마리화나(카니비스 인디카)

1302.11.02 피울 수 있게 준비된 아편

1302.19.02 마리화나(카니비스 인디카)

1302.39.04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의 부산물

2833.29.03 황산 탈륨

2903.82.02 헵타 클로르

2903.89.03 이소드린

2910.90.01 옥타하이드로 엔도, 디메탄 나프탈렌

2931.90.05 렘토포스

2939.11.01 헤로인

3003.40.01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아세틸 모르핀

3003.40.02 아세틸 모르핀

3003.90.05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40.01 아세틸 몰핀 조제품 또는 염 또는 유도체

3004.40.02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3004.90.33 마리화나(카나비스 인디카)로 만들어진 조제품

4103.20.02 거북이

4908.90.05 반사회적, 폭력적인 전사지, 음란물

4911.91.05 반사회적, 폭력적인 내용이 프린트된 인쇄물

3824.90.83 전자담배(관세 품목 8543.70.18에 포함된 상품에 사용되는 종류의 용액 및 혼합물)

8543.70.18 전자담배(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ENDS), 대체 니코틴 전달 시스템 (ANDS), 전자 비 니코틴 전달 시스템 (ENNDS), 전자 담배 및 비슷한 용도의 전자 담배)

8543.90.03 전자담배(관세 품목 8543.70.18에 포함된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

2903.81.04 린다 린을 포함한 헥사 클로로 사이클로 헥산 (HCH (ISO))

2903.82.04 옥타 클로로, 테트라 하이드로, 메타 노인 단 (클로로 데인)

2903.92.04 트리클로로, 비스(클로로 페닐)-에탄, 클로 페노 타노
 2920.11.03 디메틸, 니트로 페닐 포스 포로 티오 에이트 (메틸 파라티온)
 2920.90.18 헥사 클로로, 헥사 하이드로, 메타 노, 벤조 디 옥사 티핀, 옥사이드(엔도 술판)
 2924.12.03 클로로, 디 에틸 카르 바 모일, 메틸 비닐 디메틸 포스페이트 (포스 파미 돈)
 2924.29.49 클로로, 디 에틸(메 톡시 메틸) 아세트 아마이드 (알라 클로르)
 2930.50.03 테트라 클로로 에틸 티오, 사이클로 헥스, 디 카르복시 미드 (캡타폴)
 2930.90.74 페닐 아세테이트 (페놀 레이트)의 에틸 에스테르
 2931.90.22 트리클로로 폰
 2932.99.17 카르 보 푸란
 2933.99.49 아진 포스 메틸
 3808.50.02 메틸 파라티온
 3808.91.06 트리클로 폰
 3808.93.05 제초제
 3808.99.03 살비제
 3808.99.04 트리클로폰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Normas Mexicanas; NMX)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는 워낙 다양하고,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사전 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타이어, 전자제품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멕시코의 HSCODE 규정이 바뀌면서 몇몇 제품들은 새롭게 테스트를 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 식약청 검증 절차(COFEPRIS)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 종류: 수입허가
- 관련 규정: 멕시코 보건법 제376조

멕시코는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약청 인증(COFEPRIS)을 받아야 하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멕시코 보건부가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 제조품의 경우 멕시코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현지 수입판매자)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품목 허가를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멕시코 보건부는 '20.1.28 관보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공급선을 다각화 하고 독점시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의약품 수입요건을 완화하는 협정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멕시코의 의약품 규제 수준에 준하는 국가 또는 기관(스위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범 미주보건기구, WHO, PIC/S)의 인증을 기 취득하고 멕시코 식약청(COFEPRIS) 산하의 진단 및 처방 감독위원회를 통과한 제품은 별도의 위생등록 절차 없이 수출 가능하게 되었다.

3) 이 외 특정 품목(섬유, 중고차, 농수산물, 방산물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의 인증/허가를 득해야 한다.

TBT

1) 주류

정확한 기준이 생겼으며, 주류 수입량 제한도 사라졌으나, 새로운 테스트와 필요 서류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2) 견과류

견과류 제품 포장에 영양성분을 표기하며, 과도한 양의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이를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이 표시가 한개 이상 해당될 경우, 만화 캐릭터, 유명인 등으로 홍보할 수 없다.

3)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라벨링 관련 수정조치가 적용(20.10.1.부)되었다.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변경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감미료나 카페인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하며,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4) 상업 및 건강 정보를 표기하는 멕시코 표준인증(NOM)이 적용되는 기타 상품

2020년 10월 1일부터 상업 및 건강 정보를 표기하는 멕시코 표준인증(NOM)이 적용되는 기타 상품들은 비상업적 목적 또는 진실 서한으로 수입할 수 없다. 또한 국경 지대로 수입되는 제품들도 세관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멕시코 세관 관리국

멕시코 세관 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전국에 총 49개가 운영 중이다.

2) 통관 시 필요서류

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송장(Commercial Invoci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기타 관련 증명서(의약품에 대한 보건부의 수입허가서와 같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3)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6자리까지는 동일하며, 이후 2자리는 멕시코 관세코드, 마지막 2자리는 제품 세부 분류기준을 나타낸다.

4) 관세종류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입관세(Advalorem), DTA(Derecho de Trá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수입관세: HSCODE에 따라 0~45%까지 부과
- DTA: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기본 금액은 2021년 기준 352페소(약 17.5달러)
- IVA: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 + DTA(세관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6%
- * 단, 담배, 주류, 휘발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IEPS)가 붙으며, 품목에 따라 세율(25~160%)이 다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멕시코 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관세정보포털인 SIAVI를 통해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업

데이트가 늦거나 가끔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잦다.

사이트: <http://www.economia-snci.gob.mx/>

* 상품 관세 조회 시 EX로 표시된 국가의 경우 무관세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멕시코의 주요 항구는 콜리마에 위치한 만싸니요(Manzanillo)항구, 타바스코 지역의 도스 보카스(Dos Bocas), 베라크루즈 코타사코알코스 항구다. 한국에서 출발한 멕시코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 서해안의 만싸니요 항구를 거쳐 멕시코로 들어온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주로 대형 트럭으로 운반되며 멕시코 내륙지역과 북부지역을 거쳐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이동한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0년 기준 멕시코 주요 항구별 물동량은 만싸니요(3,009 MT), 도스 보카스(2,888 MT), 코타사코알코스(2,878 MT)이다. 만싸니요 항구와 도스 보카스 항구는 각각 전년 대비 물동량은 4%, 6% 감소했으며, 코타사코알코스는 0.5% 증가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멕시코의 주요 국제공항은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MEX), 키타나 루의 칸쿤 국제공항(CUN), 과달라하라의 돈 미겔 이달고 이 코스티야 국제공항(GDL), 몬테레이의 마리아노 에스코베도 국제공항(MTY) 등을 꼽을 수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20년 기준 멕시코 주요 공항 물동량은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이 4억 6,970만 톤, 돈 미겔 이달고 이 코스티야 국제공항이 1억 6,160만 톤, 마리아노 에스코베도 국제공항이 4,900만 톤이었다. 2020년 기준 공항을 이용한 승객수는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이 2,198만 명, 칸쿤 국제공항이 1,226만 명이었다.

3) 유의사항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현지 법인이 없다면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멕시코 수입업체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재무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Comercializadora'라고 불리는 수출입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진행하는 업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추후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허가증에 수입 취급 가능 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록 업체가 현재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멕시코로 유입되는 한국상품 중 화장품 품목 통관 관련 이슈가 많다. 한국에서 보낸 소량의 샘플 제품에 관세 및 별도의 인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별도의 서류없이 소량이라는 명목 하에 제품을 배송할 경우, 반송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기타 참고사항

멕시코는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가 복잡하며, 스페인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잘못 작성된 경우 통관을 오랜 시간 보류하는 사례가 잦다.

특히 첫 수출 시 통관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창고료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품 선적 시 제품 수량 등 정확한 정보를 C/I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멕시코 관세법에서는 수입을 크게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과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통관절차 및 관세 부여 내용이 달라진다. 1)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 연방 관세법(Ley Aduanera) 96조 및 101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이 적용되며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거나, 멕시코에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의 수입에도 해당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① 관세사 선정, ② 수입신고서 등 서류 작성, ③ 관련 세금 납부, ④ 세관의 서류 검토, ⑤ 화물검사 여부 결정, ⑥ 화물 검사 그리고 ⑦ 화물 인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세사를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2)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 임시수입 물품은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므로 관세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세법 제104조에 의한 의무는 부과된다. 관세법에 명시된 일시적 수입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들어왔다가 일정 기간 내에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와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나 경제부의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라 제조, 가공, 수리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전시나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에 수입되는 물품들로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에서 정한 날짜(통상 6개월 이내) 안에 형질의 변경 없이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을 멕시코로 가져온 당사자는 관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입국 시 직접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세관에 압류당하게 될 수 있다. - 마킬라도라,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른 재수출용 수입의 경우: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IMMEX)은 멕시코정부가 수출용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임시 수입을 허용해 부가세 및 관세의 납부 연기 그리고 고정자산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 0~7%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프로그램들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가공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IMMEX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입 관세와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나, 해당 기계나 장비가 FTA 체결국 제품인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마킬라도라 업체(보세임가공업체)가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최종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멕시코세관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관세법 제56조). 그러나 PROSEC 프로그램 등록업체의 경우 0~7% 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다. IMMEX에서 부가세 납부가 연기되는 기간은 원자재
-------------------------	---

와 부품의 경우 최대 18개월이며, 기계와 장비의 경우 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까지이다.

통관 시 유의사항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멕시코 수입업체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재무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Comercializadora’라고 불리는 수출입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추후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허가증에 수입취급 가능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록업체가 현재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통관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Agente Aduanal)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통관 업무는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입신고서(Pedimento de Importacion) 작성 시, 관세사를 통해 수출 품목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한지, 수출 품목이 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라벨링 규정은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국과는 다른 멕시코의 독자적인 10자리 HS-Code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통관이 까다로운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취급해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통관 시 각종 서류에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스페인어 작성만을 강요하면서 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잘못 작성된 경우 통관을 오랜 시간 보류하여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처음 수출할 경우, 통관검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면서 제품 납품일을 맞추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창고 보관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품 선적 시 제품 수량 등 정확한 정보를 C/I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중국산 제품의 서류 위조 의혹이 있어 더욱 까다롭게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 조사 등을 이유로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 의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한국 또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원산지 증명서에 멕시코대사관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불시에 검열을 나와 4~5년 이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자료가 미비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소송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 및 업무 지체 등의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전의 통관 관련 서류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HS-Code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0년 정도는 통관서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PanTrans S.A de C.V

주소	Londres #149, Juarez, C.P. 06600, CDMX, Mexico
전화번호	+52-55-5566-8955
이메일	info@pantrans.com.mx
홈페이지	https://www.pantrans.com.mx/
비고	운송회사

◦ Pantos Logistics Mexico S.A de C.V.

주소	David Alfaro Siqueiros 104, Zona Valle Oriente, 66278 San Pedro Garza García, N.L
전화번호	+52-81-5515-3100
이메일	hongjae.kim@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es/main.do#successStory
비고	운송회사

◦ CJ 대한통운

주소	Manufactura #502, Parque Industrial Queretaro. CP. 76220. Santa Rosa Jauregui, Queretaro
전화번호	+52-44-2240-9301
이메일	a007jm@cj.net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ko/network/en-mx
비고	운송회사

◦ Sistemas kinedyne S.A de C.V.

주소	Calzada de las Armas #130-A, Las Armadas (Zona Ind), 54080, Ciudad de Mexico, Mex
전화번호	+52-55-5318-4844
이메일	sistemas@kinedyne.com.mx
홈페이지	http://www.kinedyne.com.mx
비고	운송회사

◦ Grupo TMM, S.A de C.V.

주소	Av. de la Cuspide #4755, Col. Parque del Pedregal, C.P. 14010 CDMX
전화번호	+52-55-5629-8866
이메일	ld-puertosterminales@tmm.com.mx
홈페이지	https://www.tmm.com.mx/en/home/
비고	운송회사

◦ Tum transportistas unidos mexicanos S.A de C.V.

주소	Eucalipto #2, Fraccionamiento Industrial Tabla Honda, C.P. 54126 Tlalnepantla, Edo. de México
전화번호	+52-55-5039-0600
이메일	info@tum.com.mx
홈페이지	http://www.tum.com.mx/iniciotum.html
비고	운송회사 http://www.tum.com.mx/iniciotum.html (해외전용 URL,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Agencia naviera de méxico, S.A de C.V.

주소	Periferico Sur #3449 2do piso. San Jerónimo Lidice. México, CDMX 10200
전화번호	+52-55-5595-0073
이메일	agnamex@agnamex.com.mx
홈페이지	http://www.agnamex.com.mx/
비고	운송회사

◦ Transportadora Nacional S.A. de C.V.

주소	Calle 3a. sur #40, Col. Independencia, C.P 54914, Estado de Mexico
전화번호	+52-55-5899-8200
이메일	comercial@tnaglobal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www.tnagloballogistics.com/
비고	운송회사

◦ Savino del Bene Mexico S.A. de C.V.

주소	Insurgentes Sur #800 Piso 15 local 1 & 11, Col. Del Valle C.P. 03100, CDMX
전화번호	+52-55-5286-3018
이메일	tscarinzi.mex@sdb.net
홈페이지	https://www.savinodelbene.com/
비고	운송회사

◦ Agencia Aduanal de América

주소	Poniente 150 #688, Industrial Vallejo, C.P.02300, México, CDMX
----	---

전화번호	+52-55-8503-3200
이메일	rnavarro@aaamerica.com
홈페이지	https://www.aaamerica.com.mx/
비고	통관서비스 회사

◦ Ravisa México S.C.

주소	Varsovia #22, Col. Juárez, C.P. 06600,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8854-7172
이메일	jnavarrete@ravisa.com
홈페이지	http://www.ravisa.com/
비고	통관서비스 회사

◦ Transterre

주소	Sacramento #305, Insurgentes, C.P. 03630,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5687-3444
이메일	aguerrero@robertougarte.com
홈페이지	https://transterrelogistics.com/#home
비고	통관서비스 회사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멕시코 투자 관련 법령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n Extranjera)을 제정했으며, 1999년 1월 16일, 2001년 6월 4일, 2007년 7월 18일, 2008년 8월 20일에 일부 개정됐다. 한편, 1998년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n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 위원회 활동, 등록 절차 등 투자 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1961년 12월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했으며 동 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 시설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법인이 멕시코 내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당사자인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아울러 경제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7-A조).

- 외국법인은 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 회사정관과 기타 법인의 설립관련문서는 멕시코 법령에 명시된 공공질서 규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외국법인이 현지법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부과되는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주요 내용

2000년 11월 14일에 서명된 '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은 2002년 6월 28일에 발효됐다. 동 협정은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에 내국민,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상대국 투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상대국 투자와 수익의 자유송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경제동맹, 지역경제통합협정에 따라 체결국 간 부여되는 대우나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종류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등 물권적 재산권, 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 주식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참여와 이에 따른 권리와 이익, 금전청구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사업양허 등이 포함된다.

투자인센티브

멕시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제공되는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멕시코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기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비 지원, 고용주세 감면,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산세 등록 비용, 토지 이용세, 건축인허가 비용, 각종 인지대 감면 등이며 금융지원, 현금 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는 매우 적거나 없다.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제공 가능 범위에 대한 지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 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건건이 인센티브를 협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며,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중앙정부 인센티브

멕시코 연방정부에서 산업은행(Nafinsa)과 국영대외무역은행(Bancomext)의 신탁펀드를 통해 특별특혜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용자금은 직접 또는 일반 상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며, 산업은행(Nafinsa)도 해외은행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신탁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은행(Nafinsa)의 기업대출 중 약 80%는 중소기업 대출이며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안정, 생산력 증대, 지역개발, 국가기술 수준 향상 및 수출을 통한 외화소득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Rule 8(Regla Octava) 제도를 운영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원자재 등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경제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 인센티브

각 지방정부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는 교육훈련비 지원, 사회보장세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투자건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인센티브 수혜범위를 협상,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심지어 정부 담당자에 따라 제공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문의 시, 문의기업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며, 소규모 투자진출 시에는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이 크지 않다. 이에 더해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출서류가 많고 소요기간이 길어 투자 타당성 검토 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투자 인센티브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수출 인센티브가 매력적일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진출할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과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수출전문기업 등록 프로그램(ALTEx), 대외무역기업등록 프로그램(ECEx), 수출기업 수입세 환불 프로그램(Draw Back), Rule8(Regla Octava) 등이 있다.

◦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재화를 임시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세(IGI), 부가가치세(IVA) 납부의 연기를, 고정자산 수입 시에는 부가세 납부의 연기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상품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0~7%의 증가(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동 프로그램은 IMMEX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해 완성품을 생산한 후 수출이나 멕시코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

◦ 그 외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첷투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 소득세 20%와 부가가치세 8% 징수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조)

- 기초 석유화학제품
- 전기
- 원자력 발전
- 방사선 광물
- 전신
- 무선 전신
- 우편 업무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2)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조)

-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 개발 금융 기관
-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3)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 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49% 지분의 사업
 - *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 기금 경영, 퇴직연금 운용회사
 -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 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산업 및 발파용 폭발물의 취득 및 이용, 상기 활동을 위한 폭발혼합물의 제작 제외),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지를 소유한 회사의 T 계열 주식, 경제 제한 구역 및 연안 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관련법에 따른 내륙 항해 선박에 대한 항만 도선서비스, 내륙 및 연안 항해 선박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하는 선박회사(관광크루즈, 항만의 건설, 보소, 운영을 위한 준설선 및 이용시설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윤활유 공급, 연방통신법 11조와 12조에 의한 회사, 항공 서비스

4)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 하에 49% 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조)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 공용 비행장 피면허자
- 교육부문의 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 법률 서비스
-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한편, 49% 이상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20,184,671,346.26페소)을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위원회가 결정해 고지한다.(외국인 투자법 제9조에 의거)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프로그램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 유효했지만, 북쪽 국경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법령의 유효성을 2024 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바하캘리포니아, 치와와,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등의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43개 지역이 해당한다. 주요 혜택은 부가가치세(VAT)를 16%에서 8%로 줄이고, 소득세 (ISR)를 30%에서 20%로 인하하며, 가솔린에 대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IEPS)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이 지역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시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빈곤한 남쪽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표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를 포함한 22개 지역에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체투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체투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6%에서 8%로, 소득세를 30%에서 20%로 감면하는 것 외에도 일반 수입세 및 세관 절차법을 면제하고 있다.
-----------------	--

산업단지

◦ Parque Industrial Centro Logistico Jalisco

규모	1150ha
위치	Carretera Libre Acatlan de Juarez a Ciudad Guzman Km 11, Acatlan de Juarez, Jalisco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www.clj.mx ◦ Tel: +52-33-3615-6498 ◦ 이메일: info@clj.mx

◦ Millennium Industrial Park

규모	170ha
위치	Comisi�n Federal de Electricidad 800, Parque Industrial Millennium, Zona Industrial San Luis Potosi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http://www.argogrupocom/argo_millenium/index.html ◦ Tel: +52-44-4804-4100 ◦ 이메일: info@argogrupocom

◦ Arco 57 Industrial Park

규모	438ha
위치	Av 16 de Septiembre Km 2.1, Soyaniquilpan de Juárez, Estado de México 54280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https://www.frontierindustrial.mx/parque-industrial-arco-57-estado-de-mexico - Tel: +52-77-1699-1785 - 이메일: industrial@artha.com.mx

◦ Airport Technology Park

규모	100ha
위치	Av. Del Parque 2105, Airport Technology Park, 66655 Pesquería, N.L.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http://vynmsa.com/home/industrialParks - Tel: +52-81-8356-7978

◦ Advanced Puerto Interior Industrial Park

규모	40ha
위치	Mina de Calderones 200, Santa Fe III, Puerto Interior, C.P. 36275, Silao, Guanajuato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https://www.advance-realestate.com/ - Tel: +52-44-2427-7200 - 이메일: informes@advance-realestate.com

〈자료원 : 멕시코 산업단지협회(AMPIP)〉

주요 지역별 여건

◦ 멕시코시티(CDMX)

멕시코의 수도로 멕시코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주가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 주로 승격되었다. 멕시코 내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한 지역이다. 또한, 멕시코 내 다양한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다.

◦ 누에보 레온(Nuevo Leon)

멕시코의 북동부에 위치했다. 미국과 인접해 대 미국 수출 시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활동하고 있어, 다수의 한국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주요 진출기업: 기아자동차, Whirlpool, Navistar, Carrier 등 (*자료원: Citius Capital)

◦ 과나후아토(Guanajuato)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약 3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멕시코 내 섬유 산업의 중심지이며 한국 양말 업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주요 진출기업: Mazda, Honda, Toyota, GM 등 (*자료원: Citius Capital)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31068.6	34200.4	33729.6	34096.9	29079.4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93.34	3987.87	8364.59	10985.3	6528.13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28	20	580,235	166	549,205
2020	131	12	304,358	175	300,338
2021	85	12	235,100	93	221,46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4	0	13,598	4	13,598
제조업	73	11	176,748	101	182,0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6	6	240,465	35	204,317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1	0	2,000	1	2,000
건설업	6	1	29,143	6	29,143
도매 및 소매업	7	1	6,839	7	6,625
운수 및 창고업	3	0	920	3	920
정보통신업	5	0	26,029	6	26,026
금융 및 보험업	3	1	84,493	3	84,52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9	0	93,892	6	83,522
제조업	68	8	144,039	83	142,56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4	0	28,461	64	46,709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2	0	4,400	1	400
건설업	6	2	1,140	6	1,140
도매 및 소매업	5	1	25,101	7	25,264
운수 및 창고업	5	0	1,064	5	664
숙박 및 음식점업	2	1	6,261	1	37
정보통신업	0	0	0	2	4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6	0	22,785	5	22,611
제조업	54	8	175,092	60	154,18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3	0	25,563	16	26,791
건설업	3	0	1,876	3	1,876
도매 및 소매업	3	1	104	2	94
운수 및 창고업	3	2	665	3	666
숙박 및 음식점업	2	0	9,013	3	15,2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1	2	1	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취급분야	자동차 생산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백색가전
취급분야	LCD, PDP, LED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백색가전
취급분야	냉장고, 전기 오븐
모기업명	LG전자

○ 포스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철강
취급분야	아연도금강판 생산(자동차 및 전자제품용)
모기업명	포스코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멕시코 상법(LGSM)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총 6가지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변자본(Capital Variable) 회사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무부의 회사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작성, 재무부 납세자 등록을 거쳐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 정보 시스템(SI-RNIE)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멕시코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즉 내국민 대우가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호투자진흥 및 보장협정(APPRI)을 맺고 있어 직접투자 관련 최혜국대우가 보장된다.

지사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지점을 멕시코 내에 설치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점의 경우 멕시코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다. 따라서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한편, 멕시코 세법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사 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 본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996년부터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에 경제부(SE)의 허가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사 설립 관련 준비서류 제출 및 서류 검토는 기존 허가제 때와 동일하게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의 비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연락사무소 설립 전 한국 본사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인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정본만 인정되므로,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한국어 등)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다음,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한국 제품을 수출 시 직접 멕시코에서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소규모 업체에 대한 판매 시 어려움이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미 국무부는 멕시코 투자환경 불안요인으로 급격한 규제 변화, 불안정한 시장, 비공식 부문 의존도 과다, 부패 만연, PEMEX(멕시코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제조 기반의 탈 중국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 국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과의 접근성, 저렴한 인건비와 숙련 노동자 풍부, 전 세계 5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의 투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주요 신용 평가 기관에서 부여한 멕시코의 신용 등급은 2021년 9월 기준 S&P BBB, Fitch BBB-, Moody's Baa1이며, 라틴 아메리카와 신흥 국가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멕시코는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법상 투자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어 투자 제한사항은 없다. ○ 단독투자: 멕시코는 북미 시장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영어로 완전히 응대가 가능한 경우가 드물다. 스페인어가 불가능하다면 단독 투자 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 합작투자: 합작 투자는 파트너와 현지 네트워크 형성 등의 유리한 점도 있지만, 경영 전략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갈등 발생 및 조정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기술 제공 및 이전에 대한 이해 차이로 합작 파트너사가 기술을 이전 받게 되며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3) 분쟁해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멕시코 정부 기관은 경제부의 국제무역법률 자문국(Dirección General de Consultoría Jurídica de Comercio Internacional)이다. 경제부(+52 (55) 5729-9100, https://www.gob.mx/se/, jessica.rivera@economia.gob.mx)를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그 외 투자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보도록 변호사 간 조정을 거친다. 그러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멕시코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이 1주 이상 보유한다. 최소설립자본 금액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관례로 법인설립 시 최소자본금을 5만 페소로 설정하며 설립 시 최소 20%가 납입되어야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 즉시 출자 전액이 납입되어 2년간 회사가 보유한다. 이 기간에 평가가치가 25% 이상 하락한 경우 출자자가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발기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정관상 기재된 출자금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회사는 수권자본금의 20%에 달할 때까지 매년 이익의 5%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주는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증자 시 출자우선권을 보유한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監事) 등 세 기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 자격과 기관 자격이 분리된다.

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출자자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한 자본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설립을 위해서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무는 없다. 초기자본금은 3,000페소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설립 시 출자금액의 50%가 납부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새로운 출자자의 가입은 정관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 50%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기존 출자자들은 15일 이내에 출자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멕시코 상법은 개인사업자(Persona Fí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멕시코 재무국(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최소 필요 자본은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멕시코

시민권의 에이전트 혹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 합명회사

협동조합(Sociedad Cooperativa)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다. 회사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협동조합법(Ley de Sociedades Cooperativas)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자체의 정관과 내규를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외국인투자자법(Ley de Inversion Extranjera) 7조 1항에 조합이나 협회 설립 시 외국인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협동조합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다.

합명회사(S. N. C.: Sociedad en Nombre Colectivo)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 채권자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무한책임성격으로 인하여 멕시코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CHO and ASOCIADOS

전화번호	+52-55-5208-0210
주소	Varsovia #53(Oficina401), Juarez, C.P. 066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choasociados.com/
이메일	cho@choasociado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우현 변호사 근무

◦ YG Consulting 법률 회계 합동 법인

전화번호	+52-55-5207-8915
주소	Calle Amberes 5, Juarez, C.P. 066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ygconsulting.net/
이메일	ygconsulting@hot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영곤 변호사/공인 회계사 근무

◦ Mundus Apertus Law Firm

전화번호	+52-55-9155-2801
주소	Amberes 38, Office 101, Col. Juarez, C.P. 066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mundusapertuslawfirm.com/
이메일	abelkium@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엄기웅 변호사 근무

〈자료원 : KOTR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멕시코는 1982년 12월 외환관리법, 1987년 5월 외환관리보안법에 의해 1990년 초까지 관리변동환율제도,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며, 수출입거래에 대해 관리 환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가 1991년, 멕시코 중앙은행이 환율통제를 해제하고 1994년 말, 금융개혁을 통해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모든 외환거래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로 외환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해당 조치로 납세 등 일부 법규에 접촉되지 않는 한, 각종 자본거래가 자유로워졌으며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멕시코 환율정책은 멕시코 중앙은행 및 멕시코 재무부 관료로 이루어진 환율위원회(Comision de cambios)에 의해 운영 및 결정된다.

외환 규제

멕시코에서 해외자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994년과 1998년 폐소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외환 이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위기 이후 폐소화가 정상화되면서 외환규제는 도입되지 않게 됐다. 외환관리를 맡고 있는 멕시코중앙은행(Banco de México)과 재무부(SHCP)도 개방경제 기조를 취하고 있어 향후 외환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부터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에서 송금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마약거래 등으로 불법자금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은 돈세탁을 막기 위해 수상한 자금흐름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행, 신용기관, 환전소 등)은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부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 분기 별로 1만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의 움직임을 보고해야 하며 회사 내에 불법 자금송금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때 조사대상 화폐는 멕시코의 폐소화 및 외화, 여행자수표 및 주조된 금, 은 등이다.

멕시코는 OECD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회원으로, FATF의 기준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립해 자금세탁과 테러단체로의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멕시코로 들어오는 해외대출자금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다. 반면, 멕시코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해외통화채무 보유한도를 자산금액의 1.83배까지로 허가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기타 로열티 송금, 수출입 대금지급 규모 등 외환거래 역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해외송금 시 법인이 멕시코상업등기소(Registro Pblico de Comercio)에 등록되어 있고 법인 관련 세금을 문제없이 납부했을 경우 과실 송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송금은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은 송금과 관련해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자유송금의 권리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송금 항목으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 투자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타방계약 당사국 영역에서의 투자와 관련해 근로를 허가받은 일방계약 당사국 국민의 소득,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금, 손실보상 및 수용에 대한 보상금, 분쟁의 해결에 따른 지급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협정에 규정된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 당일에 시중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국의 법령에 따라 송금이 제한될 수 있다.

- 파산, 지급불능 및 기타 채권자 권리보전을 위한 사법절차
- 주식의 발행, 거래, 처분
- 형법 또는 행정법의 위반

- 사법절차에 따른 판결의 이행 확보

그리고 부칙에서 멕시코에서 국제수지의 심각한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 또는 계획의 이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20페소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757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24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
비고	최저임금 일당은 북쪽 지역의 경우 260.34페소, 그 외 지역은 172.87페소(2022년, 일급기준)이다. 멕시코에서 채용할 때는 대상의 자격요건과 인원수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수십, 수백 명의 인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 인력채용 업체를 활용하거나 코트라 K-MOVE센터에서 운영하는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를 통한 직원모집 또는 위탁모집이 각광받고 있다. 한편, 대졸 이상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구인광고의 경우 대도시는 일요일과 월요일 신문에, 지방 중소도시는 토요일과 일요일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멕시코 채용 포털로는 OCC Mundial(유료서비스) 등이 있다. (한국의 사람인, 잡코리아와 비슷한 포털)				

<자료원 : BBVA 은행 / 멕시코시티 K-MOVE센터>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멕시코 노동법은 법이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37조, 38조)가 없는 한 일시적·임시적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작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고용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휴가나 질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대신해서 작업하는 경우, 법적으로 특정직업(예술가, 항공기 조종사 등)에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이후 시간제 근로자, 시험채용 및 수습계약 같은 임시채용, 특정기간 채용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주 입장에서 유연한 노동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단, 시험채용(30일~최대 180일) 및 수습계약(90일~최대 180일) 기간에도 사회보장보험 가입, 휴가 연말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 시험채용기간이나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무기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 후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 간의 개별근로계약과 회사와 내부 또는 외부 노동조합 간의 단체근로계약으로 구분된다. 단체근로계약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임금은 매년 협상을 통해 갱신되도록 연방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는 Union Shop 제도도 단체계약에 의해 도입될 수 있다. 고용주가 법적 의무사항 또는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쟁의조정위원회가 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동 위원회가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근로자는 1일 이내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

2021년 4월 24일 아웃소싱(subcontratacin)을 금지하는 연방노동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1) 일반적인 아웃소싱 (파견 근로) 계약 금지, 2) 특성이 있는 용역 및 도급 공사 허용, 3) 아웃소싱은 회사(계약자)가 아닌 헤드헌팅 회사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영위하는 동일 노동에 대해 아웃소싱을 통한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기업의 사업 영역이 아닌 청소, 보안, 전문 서비스 등에 관한 아웃소싱은 허용하고 있으나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 시 연대책임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멕시코는 관행적으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법정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일일 휴식시간 30분과 중식 시간도 작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식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 종업원에게 중식 시간에는 작업장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 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의 경우 오전 06:00에서 20:00까지이며 최대 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야간의 경우 20:00에서 06:00까지 최대 7시간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야간 혼합 근무의 경우 약간 시간이 3시간 30분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7시간 30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멕시코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8시간x6일=48시간이나, 관행적으로 주5일 근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가

기업의 재량권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휴일은 부활절 휴일을 포함해서 약 6~7일 정도이다. 법정 공휴일과 선택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간 약 12일 정도의 휴일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법정 공휴일(노동법 제74조) - 2022년 기준

- 1월 1일: 신년
- 2월 7일: 제헌절(2월 5일이지만 앞당겨 시행) / 2월 첫 번째 월요일
-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 탄생일) / 3월 세 번째 월요일
- 5월 1일: 노동절
- 9월 16일: 독립기념일
- 11월 21일: 혁명 기념일(11월 20일이지만 미뤄서 시행) / 11월 세 번째 월요일
- 12월 25일: 성탄절
- 기타 선거일: 연방과 지방의 선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선거

2) 선택적 공휴일

- 3월 하순~4월 초순: 부활절 주간(매년 변동)
- 5월 10일: 어머니의 날
- 10월 12일: 신대륙 발견일
- 11월 2일: 망자의 날
-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출현 기념일

해고

- 정당한 해고를 위한 적법 절차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위법행위 내용과 위법행위가 일어난 날짜를 명시해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해고의 사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건경위서(Acta Administrativa)를 작성해 해당 근로자와 증인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노동중재위원회에 해당 근로자의 등록된 최종 주소와 함께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노동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의 해고행위는 유효하지 않으며, 만약 고용주가 상기 절차를 해당 기일 안에 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 화해중재위원회는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주의해야 할 점은 차후에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함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은 노무재판에서 관련 사실의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 노동 화해중재위원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이 명확한 증거 없이 대립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을 수용한다.

◦ 노동분쟁 관련 신규 사법시스템

2020년 11월 18일부터 근로자와 고용자 간 갈등해결 평균 소요시간을 4년에서 최대 8개월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 사법 시스템 1단계가 캄페체, 치아파스, 두랑고, 멕시코 주, 이달고, 산루이스포토시, 타바스코, 사카테카스 등 8개 주에서 우선 시작됐다. 기존 노동 조정 및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던 노동 분쟁은 사법권으로 이동해 지역 조정센터, 연방·지방 법원에서 관할하며,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이자 TTP, USMCA 협정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시범 도입 시행 중이다.

퇴직금

근로자가 자진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과 휴가 보너스(Prima Vacacional), 연말 보너스(Aguinaldo, 법적으로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를 산출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 때문에 해고할 경우 특별한 보상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치 급여에 근무연수 1년당 20일 치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밖에도 자진 사직의 경우와 같이 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멕시코의 의료보험제도는 IMSS(근로자의료보험제도)와 ISSSTE(공무원연금보험) 같은 사회보장보험제도와 일반의료보험제도로 분류된다. 일반의료보험제도인 Seguro Popular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청(INSABI)에서 소관하고 있다. 또한, 비보험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사회보장부(SSA) 직영의 의료기관을 통한 공적 구제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사회보장보험제도와 연계된 의료기관은 시설과 기술적인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부유층들은 개별적으로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멕시코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중상류층 이상은 ING나 GNP와 같은 일반사설의료보험을 이용, 진료비는 높지만 의료서비스 질이 좋은 사설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류층은 IMSS와 ISSSTE 등의 사회보장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외의 하층 국민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유사약품이나 복제약을 이용하는 등 약품 구매 이외에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고용보험

멕시코 노동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 관련 세금 이외에 사회 보장성 납부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급여의 약 40%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 보장성 납부금에 고용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멕시코 사회보험제도의 한 형태로 1943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동 보험은 근로자, 농업 및 신용 협동 조합원 등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총급여와 위험 정도 평가에 따라 총임금의 0.25~15%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또한,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없으며, 출퇴근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도 보험에 적용된다.

국민연금

멕시코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청이 직접 관장하는 IVCN(invalidez(장애), vejez(노령), cesantia(실직), muerte(사망)과 상업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퇴직저축제도(SAR)로 이루어진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이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통상 법인의 소득세 계산은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정, 즉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다음, 동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회계에서는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 예납(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14조에 의해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됐다. 멕시코의 경우 연말 세금신고(Declaracin Annual)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 수를 적용해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월급자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최대 35%까지이며 배당금 10%는 원천징수 적용한다. 개인 공제 한도는 개인 1년 총수입의 10%로 제한한다. 공제항목은 치과 및 병원 진료비, 학비, 장례비, 의료보험비, 주택담보대출이자, 국세청 승인기관에 납부한 기부금 등이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자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그리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2013년까지 국경 지역은 11%, 나머지는 16%를 적용했으나, 2014년 전국적으로 16%로 일률 적용됐다.

애완동물 매매 및 사료, 껌, 시외버스 및 기차표(시내 교통비는 제외)에 부가세가 적용됐다. 350만 페소를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 부가세가 신설된다. 논란이 됐던 식료품, 의약품, 대중교통비, 학비, 스포츠, 영화, 연극, 서커스 관람료, 귀금속(금 함유율 80% 미만)에 대한 부가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북부 국경지대에 자유무역구역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유무역구역에서는 부가세가 16%가 아닌 8%를 납부하면 된다.

특별소비세

2014년부터 튀긴 식품, 과자, 초콜릿류, 아이스크림, 곡물 식품 등 275kcal/100g 이상의 칼로리를 가진 식품에 8%의 특별소비세를 생산 회사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당 음료, 즉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 및 과당 분말에 대해 리터당 1.3036페소의 특별소비세를 생산회사에 신규 부과한다. 2017년부터는 동 조치가 유제품까지 확대되어 유제품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4도 이하의 술은 26.5%, 14도 초과 20도 이하의 술은 30%, 20도 초과 30도의 술은 53%가 부과된다. 담배는 160%이며, 자동차용 연료는 리터당 4.31~5.61페소로 품목별로 상이하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멕시코는 크게 산업재산법과 연방저작권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 원산지 명칭, 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인접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특허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반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또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멕시코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되며,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100년 동안 보호된다.

멕시코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법 제188조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직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아가 특허청은 특허품이나 상표 위조나 침해 여부에 관한 조사와 단속활동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동법 제203조).

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 청산(Liquidacin)

청산이란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에 의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채권의 회수 및 채무 이행 그리고 자산의 매각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해, 이를 동업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소멸 절차를 말한다. 기업청산은 회사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서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해산 사유(회사법 제229조)

-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종료됐을 때
-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을 때
- 모든 동업자(투자자) 또는 주주들이 해산에 동의했을 때
- 주주의 인원이 법에 규정된 최소 인원 이하가 되거나 모든 이익이 단 한 명에게 집중됐을 때
- 자본의 2/3 이상 손실이 일어났을 때
- 해당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관할 법원의 법적/행정 명령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발적 청산은 동업자 또는 공공투자자 간의 합의로 시작된다. 이 합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투자자 혹은 투자자총회를 통해서 명문화돼야 한다. 총회 후 청산인을 지명하고 청산인이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를 대신해 이후의 회사 청산을 총괄한다. 청산인은 1인 또는 그 이상 지명될 수 있으며, 회사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이 절차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 청산 관련 총회 이후 한 번의 청산 결의에 대한 총회가 더 개최돼야 하는데, 동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 배분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 해산결의안의 공증 및 등기

공증사무소(Notario Pblico)나 대서소(Corredura Pblica)에서 해산결의안을 공증받고 상업등기소에서 등기한다. 멕시코 회사법에 따라 청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업 청산을 담당할 청산인을 임명한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대서소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sat.gob.mx)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재무부(SHCP: Secretara de Hacienda y Crédito Pblico)에 해산 신고

국세청에 해산신고를 하고 나면 매월 잠정 신고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한다.

③ 청산인의 청산 작업 및 재무제표 작성

청산인은 기업의 동산/부동산 자산처분, 채권징수, 채무변제, 재고물품 처분, 직원 퇴직금 정산, 사회보장원에 납부금 정산, 이익금이 남을 경우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해 이익금 배당 등 기타 청산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방관보(DOF)에 청산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혹은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Aciso en el Sistema Electrónico establecido por la Secretara de Economía)을 통해 청산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를 채권자들이나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 당 회사가 청산 과정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연방관보에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공고 혹은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에 공고한다.

⑤ 주주총회 최종청산 결의안의 공증 및 등기

⑥ 재무부(SHCP)에 기업 자산처분내역 신고

청산인은 연방세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에 처분내역을 국세청(SAT)의 납세자 등록부(RFC)에 신고한다. R-2서류와 함께 공증된 자산처분 내역서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재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일체를 지불한다.

⑦ 재무부(SHCP)에 기업 최종청산 결의안 통지 및 납세자등록 취소

기업청산 통보를 위해 납세자 등록을 했던 재무부(SHCP)에 양식(R-2)과 함께 기업 청산서류를 제출한다. R-2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지역 재무부 사무소 위치를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마치면, 재무부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나 청산 이후

라도 청산인은 기업의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경제부(SE)에서 외국인투자 등록 취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작성했던 서류 중 첫 페이지 및 등록 취소 서류 부분을 경제부 외국인투자등록부서에 제출한다. 첫 페이지 및 등록 취소 약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에 관해서는 외교부(SRE)의 사사국(Direccin General de Inspeccin Federal Trabajo)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월~금 9:00~13:00, 15:00~18:00 상담 가능하다.

- 주소: Carretera Picacho-Ajusco 714, Tlalpan, Torres de Padierna, 14209 Ciudad de México, CDMX

- Tel: 52-55-3000-2100

○ 청산인(Liquidador)의 권한

멕시코 상업회사일반법 제 242조에서는 청산인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해산 당시 진행 중인 회사활동의 종결
- 회사의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회사 자산 매각
-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각 투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청산
- 투자자 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위한 최종 재무제표 작성, 승인된 최종 재무제표는 상업등기소에 제출
- 청산 최종절차로서 상업등기소에서 정관 등록 취소

○ 세금 관련

법인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 납부와 관련, 청산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청산인은 회계연도 최종정산 후 세금신고서를 해야 한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이 되는 날 17일까지 잠정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SAT)의 납세자등록(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을 취소해야 한다. 회사 차원에서 소득세 납부가 완료된 경우 주주의 투자금 변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배당금도 비과세이다. 청산인은 세금 납부에 공동책임이 있으며, 청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단, 청산인이 모르게 회사에서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회계 자료를 조작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 공동책임에서 면제된다.

○ 노동 관련

청산인은 동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중재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단체협약과 노동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동 계약의 종료는 더 이상의 사업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정당화된다. 사유로는 연방노동법 제53조의 공사종료, 기간 만료 또는 자본 투자의 종결을 들 수 있으며, 제 434조에 따라 합법적인 파산이 선포되고, 당국 및 채권단이 회사의 폐쇄 또는 감원을 결정도 사유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노조에 공식적으로 통지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하며, 회사의 사정상 법에서 규정된 퇴직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지불가능 퇴직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만약 노조 측에서 동 협상을 거부할 경우, 노조는 기본급여(Salario)에 복리후생(Prestacin) 및 성과급(Comisin)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2) 청산 기타 정보

- 소요기간: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데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위험 요인
 - 청산 종료 전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청산 신청 전에 회계사가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장부 및 세금 신고 내용을 철저히 사전 검사한 후 청산을 해야 세무 감사를 대비할 수 있다.

□ 파산(Quiebra)

○ 정의

파산(Quiebra)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의 채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 멕시코 파산시스템에 대한 우려

파산시스템 가동의 근본 목적 중 하나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업종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도 몇 년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복잡한 파산절차를 밟느라 자본이나 인적자원이 생산성 있는 분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 파산 관련법의 약점으로 인해 파산의 절차적,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고 실제 채권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

○ 파산관련 법령

멕시코의 파산관련 법령은 2000년부터 파산및지불유예법(Ley de Quiebras y Suspencion de Pagos)에서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으로 대체됐다. 이전 파산법에서는 주 법원에서 파산관련 우선 사법관할권을 보유했으며, 관련협회의 참여도 인정됐으나, 현재는 연방사법부(Poder Judicial Federal)에 소속된 지방법원(Juzgado de Distrito)에서 담당하며, 관련협회의 참여는 거부됐다.

동 법의 개정은 파산과 관련된 소송의 신속성 확보 및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동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파산 절차에 있어서 기한 및 결과에 대한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
- 법적 소송으로 인한 파산절차 지체 방지
- 법적 소송 관련 사안과 행정, 무역, 재무 관련 사안의 분리
- 2개 국가 이상이 관련된 파산절차에 대한 국제사법공조 강화

동 법은 상업 및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는 법적 주체에게 해당되며, 또한 외국기업의 멕시코 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요건

- 상업적 채무자의 존재
- 복수의 채권자(채무자 파산신청 시)
- 채무이행의 총체적 불능 상황
- 만기일이 최소 30일 이상 지체되며 최소한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불능이거나, 파산신청 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35%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
- 채무자의 보유 유동자산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의 80% 초과할 때

② 관할법원

사법관할권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이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소송의 성격상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동시 관할하는 경우에는 주법원에서 동 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③ 일반적 절차

기업 파산은 연방법원 소속의 지방법원에 상업경매·파산선고 신청서(La Solicitud de Concurso Mercantil)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동 신청서는 파산을 하려는 기업(채무자) 또는 1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일 경우 조정과정 없이 바로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채권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동 법원에서 실사관(Visitador)과 조정관(Conciliador)를 임명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고 동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무서류를 준비해 멕시코사회보험청(IMSS), 거래은행, 재무부(SHCP)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동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정리할 시에는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④ 법정파산전문가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에서는 파산절차상 상업, 행정, 재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법원에서 임명한다. 동 전문가들은 연방 파산관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동 법에서는 동 전문가들을 활동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실사관(Visitador): 파산선고 이전까지
- 조정관(Conciliador): 조정기간 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조정 임무
- 파산관재인(Sndico):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을 대표해 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 의무이행여부 관리

⑤ 조정단계(Conciliacin)

법정 조정 기간은 법원의 파산선고 판결문이 마지막으로 공고된 날 이후 185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조정관 또는 채권의 2/3를 가진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90일 연장 가능하며, 이후 채무자 혹은 90%의 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90일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조정 기간은 360일을 넘을 수 없다. 동 기간 동안 조정관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합의를 유도한다. 만약 조정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조정관은 파산 선고까지의 절차 및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담당하며 채무자에게 채권 가액인정 신청을 받는다. 동 과정이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채권 가액을 승인하고 채권의 등급을 정한 후 채권 변제 순서를 결정한다.

우선변제대상 채권자들이 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이미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을 조정관이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면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채권자들은 조정 결과에 따른 의무를 지니며, 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동 채무이행불능 관련 소송이 종료된다. 그러나 조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⑥ 파산선고 후 처리단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조정관을 대체하며, 채무자는 사업 및 자산의 경영권 및 관리권을 상실한다. 파산관재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완료되거나 더 이상의 환가 및 배당 가능 자산이 없을 때,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을 때 파산절차는 종료된다.

⑦ 노동 관련

파산은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제434조에 규정된 근로계약 종결사유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채권 관련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노동조정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iacin y Arbitraje)를 통해서 가압류를 통한 임금채권 지급 및 채권단 조정 과정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조정 및 파산 선고 후, 처리단계에 참여해 채권의 비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이를 배당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⑧ 파산관련 소송의 국제화

멕시코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은 2000년 제정 당시 파산소송의 국제공조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포함시켰다. 만약 파산관련 소송이 2개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관할권 및 법정대리인의 대표 적격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 파산법에서는 2000년 제정 당시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제정한 국제채무불능관련모델법(Model Law on Transborder Insolvency)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채무관련 소송은 1차적 또는 2차적으로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관할권을 보유 및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파

	1차적 또는 2차적으로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관할권을 보유 및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파산관재인이 멕시코 법원에서 법적 행위자격 및 소송자격을 보유하며, 멕시코 내에 주재하는 채무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모델 법에 규정된 대로, 멕시코 전문가들(실사관, 조정관, 파산관재인)도 또한 외국의 파산관련 법정에서 동일한 법적 자격을 인정받는다.
--	--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20년 멕시코 평균 연령은 29세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40세 이하로 향후 시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2019년 말까지 인구의 과반수 약 50.27%가 중하위층에 속했고, 인구의 20.39%로 하위층, 중상위층이 20.06%, 부유층이 9.28%로 분류되었다. 2021년 하위 계층의 대부분이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수준으로 실질 구매력이 낮으며 실제로 소비가 적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소비 성향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크다. 국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일반 슈퍼 및 재래시장에서 저가 제품을 선택하며, 부유층은 고가 수입품을 구매한다. 따라서 멕시코 시장은 전반적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가격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품은 고급품과 저급품으로 나뉘며, 고급품은 주로 일류 백화점이나 부촌 거주지역의 전문점에서 판매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다. 고급품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대다수의 유명브랜드들이 진출해 있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 시즌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이다. 해당 시기에는 기업들도 거래처와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다. 그 외에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 어린이용 선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어머니날(5월 10일), 아버지날(6월 셋째 주 일요일), 어린이날(4월 30일) 부활절(Semana Santa, 3월 말 또는 4월 초) 등이 수요가 높은 기간이다.

멕시코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Black Friday를 벤치마킹하여 2011년부터 “El Buen Fin”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11월 16~19일 시기에 멕시코 혁명기념일(Dia de la Revolucion Mexicana)과 연계하여 시행되며, 매년 참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의 휴가철은 7~8월 및 12~1월로 여름보다는 겨울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휴가 용품의 구입시즌은 통상 12월이다. 학교는 9월 학기제로 8월 말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문구류 등은 8월부터 9월까지 수요가 높다.

멕시코 온라인 판매 협회(AMVO)는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의 개발 및 확장을 장려,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주 “Hot Sale”을 실시하고 있다. 연중 최고 할인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업계의 연례행사로, 2021년에는 13만 1,000개의 회사가 참여했으며 매출은 317억 3,100페소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멕시코에서도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과 유사하게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BTS, 블랙핑크 등 한류 아이돌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이며, 팬클럽 멤버들은 구매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많아 영화, 음악 등도 정품이 아닌 불법경로(Pirateria)로 유통되고 있어 실질적인 비즈니스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K-Beauty), 소비재,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중소기업 한국 브랜드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마케팅 활동과 병행하여 한국 문화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에이전트 확보 중요

멕시코 진출 시 전국적인 배급망을 지닌 안정적인 대형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해 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수출 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2) 할인 상술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인들은 값을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터는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값을 깎는 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고려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 인하를 요구받으면 못 이기는 척 할인해주는 상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 놓으면 아예 깎으려 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다.

3) 시장관리와 제품관리 필요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가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저가품 시장과 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델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설비 등 기계장치는 A/S가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보증할 시 판매에 유리하다.

4) 출장 시기 조절 필요

7~8월 및 12월은 휴가시즌이며, 부활절 기간도 대표적인 휴가 기간이므로 현지 출장 시에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매년 10월 말 포뮬러 원(Formula 1)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시기 숙소예약이 어렵다. 앞서 설명한 성수기에는 호텔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간에 비해 높은 숙박료를 요구하고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5) 스페인어 습득 필수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영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보다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중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상호 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페인어 통역을 대동해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와 거래 시 간단한 회화라도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면 한결 상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므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이 도움된다.

6) 소량 주문 위주

멕시코 시장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수입시장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보다는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7) 여유가 느껴지는 정서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 ‘아오리타(Ahorita)’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이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 쪽 수출상의 오퍼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면 ‘아오리타’ 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하면 또 ‘아오리타’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아오리타’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 내인지, 1시간 내인지, 오늘 중인지, 또는 몇 월 며칠까지인지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8)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현재 코로나19로 동향 파악 및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2월 21일 현재 멕시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 16위, 사망자 수 5위, 치명률 약 7.6%로 주별 코로나 신호등 체계 및 거리 두기 조치 시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는 행정처리(통관, 제품 인허가 등)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바이어와 비즈니스 절차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인플루언서, 화상상담,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마케팅 톨 강화가 필요하며, 비대면 비즈니스를 위해 Zoom, Microsoft Teams 및 Webex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인사

한국과 멕시코의 관습 중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인사방법이다. 멕시코의 인사법은 남녀 또는 여자들 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볍게 포옹한 채 상대의 볼에 가볍게 뺨을 대는 것이고, 남자들끼리는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이다.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 측 세일즈맨에 대해 처음부터 불신감을 가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악수는 너무 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꼭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악수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2m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어 비즈니스 시 기존의 인사 관습인 악수 등은 피해야 한다.

2) 유머 상술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유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놀고 마시며 즐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하다. 유머는 곧 상술이다.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라든지 문화유적, 카리브의 아름다운 해변, 멕시코인의 친절성, 테킬라와 코로나 맥주의 한국 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물 주고받는 문화 일상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처들에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현지인들이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인삼차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토속적인 장식품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공 등의 선물도 좋다.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고리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여유로운 약속시간

멕시코 문화에서는 약속시각에 다소 늦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부 바이어가 약속시간에 조금 늦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속을 잡은 당사자의 기분이 상해 대화가 거칠어지는 때도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5) 인맥형성 우선

멕시코인들은 낙천적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이는 성격이 급한 한국인이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한번 방문 상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매우 어려우므로, 시간을 갖고 거래선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려 우선 친구처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인맥을 먼저 쌓기 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면 되며, 거래선 방문은 사전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mazon(www.amazon.com.mx) ○ 개요: 2020년 기준, 멕시코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가 등록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아마존 멕시코는 2015년부터 멕시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 14억 달러, 고용인원은 약 1만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장난감, 스포츠 용품, 미용 및 패션 제품, 도서, 식품, 문화(음악 및 영화) 등 생활 소비재 전반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무료 배송 및 무료 반품을 제공한다. 또한 프라임 데이와 번개딜과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마존 멕시코 계정 등록 후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아마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2) Mercado Libre(https://www.mercadolibre.com.mx/) ○ 개요: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회사인 메르카도 리브레는 경매 사이트로 시작하여 중고제품 판매 플랫폼을 거쳐, 현재 총 18개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로 성장했다. 현재 멕시코 2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메르카도 리브레는 1999년부터 멕시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5억 7520만 달러, 고용인원은 약 1,023명으로 집계된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장난감, 스포츠 용품, 미용 및 패션 제품 등 생활 소비재 전반을 판매한다. ○ 특징: 새제품과 중고 제품을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다. 자체 지불 플랫폼 MercadoPago를 이용하여 안전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다. 3) Linio (www.linio.com.mx) ○ 개요: 리니오는 2012년 멕시코, 스웨덴, 독일 자본으로 설립되었고, 2018년 Falabella에 인수되었다. 현재 멕시코 주요 인터넷 판매 포털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2년 설립되었으며 고용인원은 약 500명~1000명 사이로 확인된다. 매출액은 약 7,500만불에서 1억불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가정용품, 미용 및 패션제품 등 소비재 제품 위주다. ○ 특징: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유사하며 제품 검색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할 수 있으며,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Ebay(www.mx.ebay.com) ○ 개요: 전자 상거래의 개척자인 이베이는 멕시코인의 선호도가 높은 플랫폼 중 하나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5년 설립된 이베이는 2020년 매출액 566만 달러다. 멕시코 고용인원은 약 100~500명 사이로 추정된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패션제품 등 ○ 특징: 판매자가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품 배송 국가를 설정하여 국제 배송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판매뿐 아니라 경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5) Wish(www.wish.com) ○ 개요: 2011년 미국에서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멕시코에서는 아직 규모가 작은 편이나, 값싼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8년부터 멕시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멕시코 고용인원은 10명~100명 이하다. 전체 매출액은 25억불 규모이나 멕시코의 단독 매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패션제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 특징: 알리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운영체제로 단순하여 사용이 편하고, 값이 싸며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패션, 액세서리, 전자제품, 애완동물 등 3억 가지가 넘는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구매 옵션을 통해 제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폴리에틸렌 타포린 응용 분야 하이테크 기업 A사

A사는 폴리에틸렌 타포린 제조 전문기업 한국과 중국에서 원단 및 완제품을 생산, 전 세계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타포린 응용 분야의 하이테크 기업이다. 폴리에틸렌 타포린은 주로 천막, 화물 차량의 덮개, 차양막 등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물건의 보호를 위한 방수 시트 등으로 사용된다. 이 회사에서는 미국의 홈데포, 월마트 등과도 거래를 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멕시코 시장 진출도 시도하게 됐다.

일단 멕시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주요 바이어들을 접촉하며 타포린 수입 상위 바이어, 각 바이어별 취급 품목과 사양, 바이어로부터 입수한 시장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와 같은 시장조사 활동을 통해, 멕시코 타포린 시장이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고 주로 중량이 낮은 저가의 타포린이나 재활용 타포린을 취급한다는 것이 포착됐다. 사실 고품질 타포린을 생산하는 P사로서는 가격이 경쟁사 대비 5~10% 높고, 재활용 타포린은 생산하지 않아 멕시코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게 됐다. 또한, 유망 바이어들이 멕시코 전역에 분산돼 있어 업체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 전시회인 하드웨어 엑스포에 참석, 전국에 퍼져있는 타깃 바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A사의 샘플을 제공,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회 참가업체 중에서 A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들의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상담 및 샘플을 제공했다.

약 2주가 지난 시점(샘플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기간)부터 전시회에서 만났던 바이어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전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몇몇 멕시코 업체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견적을 요청 및 나아가 독점권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멕시코 유력 바이어인 B사와는 40피트 21개 컨테이너 오더라는 성과를 창출하게 됐다.

A사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이어들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국토가 상당히 큰 관계로 지방 바이어들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이 가격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는 한 품질에 대해 높은 신뢰를 하기 어렵다. A사의 경우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전시회라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고, 이에 성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 라면 업체 A사

진입 초기 A사는 일본의 마루찬(Maruchan)이 용기라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똑같이 용기 제품으로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봉투라면을 들여와 시장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A사가 진출할 당시 크노르(Knorr), 캠펠(Campbell), 유니레버(Unilever) 등 인지가 높은 다국적 기업이 용기라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현재는 모두 마루찬의 벽을 뚫지 못하고 철수한 상태이다. A사는 봉지라면과 용기라면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라면 전문 메이커로서의 인지도를 다져가고 있다.

A사는 용기면과 봉투라면의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시켜 멕시코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컵라면은 수프 개념으로서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먹는 점을 최대한 수용해, 현지 시판 중인 일본 제품인 마루찬(Maruchan), 닛신(Nissin) 등 타사 용기면과 똑같은 용량으로 제품으로 출시했다. 또한, 새우, 해물, 쇠고기, 닭고기 등 멕시코인들에게 친숙한 맛을 내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반면, 봉지라면은 닭고기, 해물, 새우 등 멕시코인들이 선호하는 양념을 첨가했으나 한국라면과 거의 비슷한 매운맛을 준수하면서 출시하고 있다. ‘끓여 먹는 라면’의 개념이 없어 수요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지속한 결과, A사는 봉투라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A사는 현지기업 P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산설비를 공유, 생산설비 건설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P사는 A사의 즉석라면의 경우, 두 회사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효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현지 생산은 물류비 절약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직접 수입할 때 어려움을 가져왔던 까다로운 통관절차, 복잡한 수입절차로 인한 비용을 줄였다. 이러한 생산비 절감은 결국 제품가격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

A사의 경우 한국에서 직접 수출한 제품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시작한 후,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생산업체와 제휴를 단행하는 등 단계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진출의 경우,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는 현지공장, 사무소 설립 등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무턱대고 진출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뻔한 일이다. 하지만 A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장 진출, 현지 업체 제휴 등 현지 진출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진출을 꾀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3) 가전업체, D사 성공사례

D사는 멕시코에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고 있다. D사는 멕시코는 햇볕이 강하고 건조한 지역이 많은 점 및 중산층도 가전부를 고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세탁기에서 탈수 기능을 빼고 세탁만 되는 세탁기를 판매했다. D사는 이 세탁기의 출시로 한때 멕시코 중저가 세탁기 점유율 65%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D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 진출에서 시장조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차량위치추적기 S사의 성공 사례

S사는 도난방지용 차량 위치추적기 제조업체로 멕시코 전시회에서 멕시코 GPS 업체와 만나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본사에서 직접 멕시코로 엔지니어까지 파견해 가며 진행된 테스트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됐고, 마침내 제품의 펌웨어 일부를 변경해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거래 동안 예상치 못한 불량품 발생 등의 위기에 처했으나 발 빠른 대처로 이를 극복, 바이어와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5) 의료기기 E사의 수출 성공사례

E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X-Ray 기기 및 패널을 주로 판매, 생산했다. 국내, 미국 등의 시장에서 활동하던 중 중남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생겨 바이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진출 초기 시장조사를 통해 멕시코 내 X-Ray 시스템은 CR(Computed Radiography)과 아날로그 방식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DR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DR 방식은 진료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이어들이 해당 상품의 정보가 부족해 초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KOTRA 내방을 통해 수출상담을 진행, 멕시코 바이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판매만이 아닌 A/S 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은 자체 바이어 인터뷰를 바탕으로 일부 한국, 중국 업체의 경우 A/S 서비스나 보증기간을 약속하고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일부 멕시코 바이어들은 한국, 중국 업체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조언을 들은 후 바이어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제품의 보증기간 보장 및 A/S 서비스 등 안전한 사후 관리를 약속하기 시작했다. 동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 내 신규 상품 수출 시 품질은 물론 제품의 사후 관리 및 품질 보장이 중요하다.

6) 화장품 기업 S사의 수출 성공사례

한국계 화장품 회사인 S사는 약 4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멕시코에는 모델링 테이크아웃 콤팩트파우더, 수분 크림, 마스크팩 등을 수출했다. 동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과 문화적 배경이 많이 달라서 색상, 디자인 등을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S사는 바이어에 수출뿐 아니라 마케팅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멕시코 시장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시장을 잘 아는 유통 전문 업체나 바이어를 통해 시장 정보를 얻고 향후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진행하도록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7) 화장품 기업 P사의 수출 성공사례

멕시코 바이어 F사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희망하여, 멕시코시티무역관에 제조사를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는 한국기업 P사를 포함,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국기업이 KOTRA가 주최한 2019년 Expo Corea에 참가하여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바이어는 제조사의 가격경쟁력 및 제품 사양을 마음에 들어 했다. 바이어는 마스크팩 한 장당 15g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조사의 설득으로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그만큼의 중량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고, 바이어가 이를 빠르게 수락했다. 멕시코 현지 시장에 대한 빠른 이해와 바이어의 정확한 제품 요구사항을 신속히 충족하고, 제안하여 조율했기 때문에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8) 코로나 진단검사 제조업체 M사의 수출 성공사례

한국 진단검사 제조업체 M사는 진단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KOTRA를 통해 추출키트가 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추출키트 및 장비로 멕시코 시장을 선 공략했다. M사가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멕시코 주요 주(州)정부에서 관심을 보이며, 주 정부 차원에서 인증, 통관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동 기업은 특히 A/S 분야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하며, 구매 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구매 후에도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현지 주(州) 정부는 국내기업을 재구매하며 A/S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2012년 11월 9일 개정 신이민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비자발급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관광비자로 입국해 다른 형태의 비자로 변경 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거주 목적에 따라 출국 전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즉 관광으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현지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0일 이상 4년 이하로 장기 비즈니스, 엔지니어, 주재원, 교환 학생, 파견학생, 여학연수,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채용된 자, 인턴십 프로그램 및 관광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한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비자처리 기간은 약 10일(주말, 공휴일 제외)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자 등 영사업무 및 민사업무는 모두 예약제(MEXITEL)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안내 링크: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 문의: consularesembcor@sre.gob.mx
- 예약: <https://mexitel.sre.gob.mx/citas.webportal/pages/public/login/login.jsf>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UBLICA DE COREA” 선택하면 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분류한 비자의 종류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자(관광비자)

관광 목적의 한국 국적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180일간 무비자로 입국 및 체류를 할 수 있다.

② 단기출장비자(180일 미만)

한-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단기 출장, 관광, 교육, 경유 목적으로 방문할 대한민국 국적자는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자 접수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쥬겐 조약, 영국, 일본 영주권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자 비자/단기출장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 단,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해 가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대사관 관련 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mx-ko/brd/m_5936/view.do?seq=13466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③ 단기거주비자-주재원(180일 이상 4년 이하)

이 체류자격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즉, 한국법인, 기관에서 파견, 주재원 등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에 한하며 급여는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비영리 목적 명시).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워킹비자(NUT)를 신청해야 한다.

④ 워킹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멕시코에서 일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 멕시코 업체가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사전비자신청을 한 후, 비자접수번호(Número Unico de Trámite, NUT)를 받아야 하며, 영사 인터뷰 승인을 받은 후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 접수를 하여야 한다.

⑤ 학생비자(180일 미만)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180일 이하) 입국 가능하므로, 이 경우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거주증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라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⑥ 학생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예정확인서가 필요하며, 동 서류에는 학업기간이 180일 이상 명시되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멕시코 이민청에 방문·신고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 선교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장 원본 및 종교활동과 관련된 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⑧ 가족동반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가족을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 초청할 가족구성원과 함께 멕시코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단기 거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에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초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멕시코 비자 또는 Residencia Temporal 또는 Residencia Permanente 카드와 여권을 지참하여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초청받아 가는 가족구성원의 사람 수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멕시코의 법적 성인 나이는 18세로, 만 18세가 된 자녀는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⑨ 가족동반 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멕시코에 있는 경우)

신청 인원의 수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멕시코대사관에 접수하기 전, 멕시코 현지에 거주하는 초청자가 멕시코 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INAMI)에 직접 방문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의 여권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한다.

* 신청비자 종류: 가족동반비자 (UNIDAD FAMILIAR) 이후 멕시코 이민청으로부터 비자허가서(NUT 번호)를 수령한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일반 면세를 기준으로 육로 이동 시 미화 300불 이내, 항공 및 해운 이용 시 미화 500불의 생활용품은 면세 한도금액이다. 주류의 경우와 인은 최대 6리터, 알코올 음료는 최대 3리터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의 경우 궤련은 10갑, 시가는 25개 또는 200g의 실담배일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참조링크 http://omawww.sat.gob.mx/BienvenidoaMexico/Paginas/respaldo/mercancia_puedes_ingresar.html)

멕시코에 입국 또는 경유, 환승하는 여행객이라도 미화 1만 불 이상을 소지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52-55-5202-9866
주소	Lope Diaz de Armendariz 110, Lomas de Virreyes C.P110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mx-ko/index.do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52-55-5511-8445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389 Piso 10A, Col. Cuauhtemoc, Del. Cuauhtemoc, 06500, Mexico D.F., Mexico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 멕시코 한인회

전화번호	+52-55-5533-0456
주소	Liverpool 17 Col.Juarez ,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latin-hanin.net/mx/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화번호	+52-55-9155-7686
주소	Reforma Capital Torre B Piso 17-A, Paseo de la Reforma 250, Col. Juarez, Del. Cuauhtemoc, CDMX.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index.do

○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52-55-6284-3247
주소	Temístocles 122, Colonia Polanco, Ciudad de México
홈페이지	http://mexico.korean-culture.org/ko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전화번호	+52-800-5533-000
주소	Palacio Nacional (Calle Correo Mayor esquina con calle Soledad), Centro, Ciudad de México. C.P. 06060
홈페이지	https://www.gob.mx/shcp

◦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전화번호	+52-55-5729-9100
주소	Pachuca 189, Col. Condesa, Demarcación Territorial Cuauhtémoc, Ciudad de México. C.P. 06140
홈페이지	https://www.gob.mx/se/

◦ 외교부(S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전화번호	+52-55-3686-5100
주소	Avenida Juárez #20, Centro, C.P. 060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gob.mx/sre

◦ Reforma 신문

전화번호	+52-55-5628-7575/7878
주소	Av. Mexico Coyoacan #40, Col. Santa Cruz Atoyac, Del. Benito Juarez C.P. 0331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reforma.com

◦ 대외무역협회(CONSEJO MEXICANO DE COMERCIO EXTERIO)

전화번호	+52-55-5231-7100
주소	Monte Elbruz 124 Piso 8, Miguel Hidalgo, Palmitas, C.P. 1156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comce.org.mx/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20 페소(2021년 12월 기준)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9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9.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8.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7.5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55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4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850
8	의료	항생제	14정	7.95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3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25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45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7.5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1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5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4.300
16	여가	담배(말보로 라이트)	1갑	3.200
17	여가	소주(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6.00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알일)	8.64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 수업료	연간	12215.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5.500

<자료원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 조사 및 언론자료 종합>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멕시코 통화는 자체 화폐인 페소화(Peso, MXN)를 사용한다. 동전은 1, 2, 5, 10페소가 있다. 1페소 아래 단위인 센타보(10센타보, 20센타보, 50센타보)가 있지만, 최근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폐의 단위는 20, 50, 100, 200, 500, 1,000페소가 있다. 현지에서는 페소화를 \$로 표기하므로 미 달러화(US \$ 표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칸쿤 등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는 미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지만 멕시코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페소화로만 결제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국민은 탈세의 사유로 달러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달러 현금 거래의 경우 현지 환전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일반은행에서 달러 현금을 받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또는 시내 사설환전소(Casa de Cambio) 혹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호텔은 24시간 환전할 수 있으나 적용환율이 매우 불리하므로 잘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공항 내 환전소에서 미화 1만 불 이상을 환전할 경우에는 연방경찰에 통보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공항에서는 다액 환전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개 환전 시 여권으로 신분 증명을 한 후 환전을 해준다. 시내 환전소는 환전소마다 적용환율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의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고액을 환전할 경우 강도나 소매치기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이용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복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카드 뒷면 CVC 코드를 안 보이게 가려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카드결제단말기 비밀번호 입력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한다.

또한,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 는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멕시코는 한국과 비교해서 도로 인프라가 낙후된 편이다. 고속도로, 국도 등은 노후화된 곳이 많고 정부에서는 예산 문제로 전면적인 도로 정비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구간만 정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도시 대부분이 교통 체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특히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네덜란드 내비게이션 업체인 '툼툼'이 인구 80만 명 이상 도시 416곳을 대상으로 교통혼잡도를 조사한 결과 멕시코시티는 29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인 7시에서 9시, 18시에서 20시 사이에 교통이 많이 혼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경우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버스

시내버스는 비교적 잘 발달해 있어 시내 곳곳으로 연결된다. 시내버스 유형은 대형버스(RTP, Red de Transportes de Pasajeros), 소형 버스(Microbus), 전기버스(Trolebus) 등이 있다. 기본 요금은 RTP 버스 5페소, 메트로버스는 6페소, 전기 버스는 2페소이다. 소형 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은 5~6페소이며, 5km 이상의 경우 추가 요금이 징수된다. 지하철 요금 및 멕시코시티 남부지역에서 활용되는 경전철 요금은 5페소이다.

멕시코시티 내에서는 Metrobus라는 2층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버스요금은 6페소로 멕시코시티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도록 버스 노선이 구성되어있다. 일반 버스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전용구간이 있어 여성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다.

택시

멕시코는 택시 강도가 성행하므로 노상에서 일반택시(Libre 표시) 승차는 매우 위험한 편이다. 따라서 반드시 콜택시(시띠오/Sitio) 또는 호텔 택시 이용을 권유한다.

멕시코시티 내 추천 택시회사는 Taximex로 24시간 운영되며 스페인어 서비스만 제공한다.
(Taximex 연락처 : 55-9171-8888)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공항 택시(Taxi Autorizado)를 이용하며, 판매소에서 거리별 산정된 정액 요금에 따라 쿠폰 구입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한다. 간혹 입국장 주변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나 바가지요금과 강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Uber, DiDi 등 공유 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택시에 비해 요금은 다소 높은 편이나 안전하다.

항공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몬테레이, 락로아나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보통 항공편을 이용한다.

국내선은 모든 주에 있는 대부분의 공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국제선은 멕시코 시티 및 몬테레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자주 출발한다. 멕시코시티 공항은 Terminal 1과 Terminal 2로 운영되며 터미널2에서는 국적기인 아에로멕시코 외 주요 외항사가 운영 중이며, 터미널 1에서 그 외 저가항공사 VivaAerobus, Volaris 등 항공기가 운영된다. 멕시코시티 공항은 시내에서 비교적 가까워 공항 간 약 30분 차로 으로 도착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 이동의 경우, 국적기인 Aeroméxico의 서비스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 통신

핸드폰

멕시코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통신사를 통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현지에서 심카드(Sim Card)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멕시코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플랜 서비스(일종의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가입 절차가 복잡해 출장, 유학과 같이 일정 기간 체류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선불심카드(Sim Prepago)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멕시코의 주요 통신사로는 TELCEL, AT&T, MOVISTAR가 있다. 심 카드 구입처는 휴대전화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편의점과 MOBO샵과 같은 휴대전화 액세서리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요금 충전은 대리점, 편의점(OXXO, 세븐일레븐, Circle K 등), 월마트, Sanborns 등 여러 곳에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심카드 가격은 약 30페소에서 130페소 정도(1.5달러에서 6.5달러 수준)이다.

핸드폰 브랜드는 삼성, 애플, 샤오미, 화웨이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고가와 중저가 시장으로 완전하게 분리된다. 현지에서 삼성, 애플폰은 고가이며 가격도 한국과 비슷하다.

인터넷(와이파이)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넘겨받은 후 명의만 바뀌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청 및 개설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가격 등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가정용 TV, 인터넷, 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500페소(약 24~25달러) 정도이다.(인터넷, 시내전화 무제한 기준) 참고로 인터넷 신규 신청의 경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설치기사가 신청 후 2~3주 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라. 관광명소

◦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도시명	San Francisco Mazapa
주소	55800 San Juan Teotihuacan de Arista, México
운영시간	월~일요일(09:00~17: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신의 도시라는 의미로 기원전 약 2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전성기에 중남미에서 최대 인구가 거주한 기록이 있다.

◦ 소칼로 광장(Zocal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Plaza de la Constitucion, Centro Historico, Centro, C.P. 06010, CDMX, Mexico
운영시간	24시간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며, 주변에 대통령궁,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Templo Mayor(아즈텍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다.

◦ 국립인류학박물관(Anthropology National Museum)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Paseo de la Reforma s/n, Polanco, Bosque de Chapultepec I Secc, Miguel Hidalgo, 11560 Ciudad de México, CDMX
운영시간	화~일요일(09:00~19:00)
휴무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멕시코시티 차풀테펙(Chapultepec)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아즈텍, 마야, 톨테카 등 멕시코 주요 문명 유물을 전시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태양석(Piedra del Sol) 등 진귀한 유물 관람이 가능하다.

○ 과달루페 성당(Basilica of Guadalupe)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Fray Juan de Zumarraga No. 2, Villa Gustavo A. Madero, Gustavo A. Madero, 07050 Ciudad de México, CDMX
운영시간	월~일요일(06:00~21: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세계 3대 성모 발현지(과달루페 성모)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자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달루페 성모일(12. 12.)에 전국 각지에서 신자들이 집결한다.

○ 국립예술극장(Bellas Artes)(Palace of Fine Arts Mexic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Juarez, Centro Historico, C.P. 06050, CDMX, Mexico
운영시간	화~일요일(10:00~17:45)
휴무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극장으로, 멕시코 전통 민속무용,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자료원 : 멕시코 현지 언론자료 종합〉

마. 식당

- 현지식당

○ 산 앙헬 인 (Restaurante San Angel In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 5616-1402
주소	Diego Rivera 50, San Angel Inn, C.P. 0106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금요일(07:00~01:00), 토요일(08:00~01:00), 일요일(08: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멕시코시티 남쪽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정원이 인상적이다.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식당이며, 동 식당 주변에는 주말에 전통 공예품 베품시장이 열린다.
비고	https://sanangelinn.com/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엘 칼리파 (El Califa)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11-9424
주소	Av. Paseo de la Reforma 382, Juárez, Cuauhtémoc, 06600 Ciudad de México, CDMX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일요일(10:00~23: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멕시코 서민 요리이자 가장 대표적인 요리인 따꼬(Taco) 전문 체인점으로 비교적 깔끔한 분위기이다.
비고	https://elcalifa.com.mx/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후난(Huna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661-6414
주소	Pedro Luis Ogazon 102, San Angel, C.P. 0102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수(13:30~23:00), 목~토(13:30~24:00), 일(13:30~19: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멕시코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중식당 중 하나로, 분위기가 매우 고급스럽고 전반적으로 음식 맛도 훌륭하다.
비고	https://www.hunan.com.mx/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나가오카(Nagaoka)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43-9530
주소	Arkansas 38, Napoles, C.P. 0381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화~토요일(13:00~22:30), 일요일(13:00~19:30)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으로 분위기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지만 깔끔하다. 음식 맛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특히 우동이 유명하다. 위치는 WTC(World Trade Center) 근처에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한국식당

○ 영빈관(Young Bin Kwa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208-9399
주소	Copenhagen 28, Juarez, C.P. 0660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일요일(12: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각종 고기류, 식사류(찌개, 탕)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아리랑(Arirang Korean Restaurant)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2155-2463
주소	Florencia 67, Juarez, C.P. 0660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일요일(12: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보쌈, 생선회, 복요리, 각종 찌개류 및 칼국수 등을 취급한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민속촌(Min Sok Cho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9155-7676
주소	Florencia 45, Juarez, C.P. 0660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토요일(12:00~2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국밥류를 주로 취급한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고향집(Gohyangjip)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208-0215
주소	Florencia 43, Juarez, Cuauhtemoc, 06600 Ciudad de Mexico, CDMX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토요일(12:00~2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김치삼겹전골, 닭볶음탕, 샤브샤브 등을 취급한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수라상(Surasang)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11-7929
주소	VARSOVIA 13 COL. JUAREZ 06600 MEXICO D.F.,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11:30-22:00
휴무일	무휴
소개	김밥, 보쌈,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늘봄(Nul bom)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207-2428
주소	Londres 177, Juarez, Cuauhtemoc, 06600 Col Juarez,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된장찌개, 갈비탕, 설렁탕, 육개장, 삼겹살, 보리밥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나대포(Nadef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25-0351
주소	Liverpool 183, Mexico City 06600,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12:00-22:00
휴무일	무휴
소개	비빔밥, 갈비창, 갈비찜, 차돌박이, LA 갈비, 곱창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https://www.facebook.com/NadefoMX/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마포갈비(Mapo Gal Bi)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11-0305
주소	Liverpool #185 local E Col. Juarez Deleg. Cuauhtemoc C.P. 06600 Mexico D.F.,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12:00-22:00
휴무일	화요일 휴무
소개	양념되지갈비, 양념소갈비, 불고기, 곱창전골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리우 플라자 과달라하라(Hotel Riu Plaza Guadalajara)

도시명	과달라하라(Guadalajara)
주소	Av. Adolfo Lopez Mateos Sur 830, Chapalita, C.P. 44500 Guadalajara, Jal.

전화번호	+52-33-3880-7500
홈페이지	https://www.riu.com/en/hotel/mexico/guadalajara/hotel-riu-plaza-guadalajara/
숙박료	89.25 달러 (부가세 별도)~
소개	도시의 가장 독점적인 과달라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5성급 호텔로, Travelife Sustainability System GOLD 인증 및 AAA Four Diamond Award를 수상하였으며, 식당, 바, 수영장, 스파, 헬스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비고	2021년 12월 기준 가격이며,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웨라톤 멕시코시티 마리아 이사벨(Hotel Maria Isabel Sherato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Paseo de la Reforma 325, Cuauhtemoc, C.P. 06500, CDMX, Mexico Ciudad de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5242-5555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mexis-sheraton-mexico-city-maria-isabel-hotel/
숙박료	145 달러(부가세 별도)~
소개	Angel de la Independencia 기념탑 바로 앞에 있는 도시 최고의 호텔로 유명한 Paseo de la Reforma 거리의 멕시코시티 중심에 위치하며, 다양한 식당, 박물관, 역사관광지 등과 가까이 있다.
비고	2021년 12월 기준 가격이며,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사피 로열 럭셔리 호텔(Safi Royal Luxury Hotel)

도시명	몬테레이(Monterrey)
주소	Av. Diego Rivera 555, Valle Oriente, 66260 San Pedro Garza García, N.L.
전화번호	+52-81-8100-7000
홈페이지	http://www.safihotel.com/towers/english/
숙박료	기준가 153달러 / 할인가 65달러 (부가세 별도)~
소개	회의실, 수영장, 체육관, 고속 인터넷, 비즈니스 센터, 넓은 주차장 등 모든 호텔 편의시설을 구비한 몬테레이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접근성이 좋다. 244개의 넓고 우아하고 편안한 객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24시간 풀 서비스로 국제 요리를 제공한다.
비고	2021년 12월 기준 가격이며,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까사 뽀뽀(Casa Pepe Hostel Boutique)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	-------------

주소	República de Uruguay 86, Centro Histórico de la Cdad. de México, Centro, Cuauhtémoc, 06000 Ciudad de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4040-7997
홈페이지	https://www.casapepe.mx/
숙박료	60 달러 수준
소개	멕시코시티 센트로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로, 소칼로 광장(Zocalo Square)에서 600m 거리,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Metropolitan Cathedral)에서 1km 이내의 거리에 있다. 무료 Wi-Fi를 갖춘 숙박 시설을 제공한다. 모든 객실에 샤워시설, 발코니, 옷장이 구비되어 있다.
비고	2021년 12월 기준 가격이며,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원 : KOTRA 보유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멕시코의 치안은 한국에 비해 다소 불안한 편이다.

또한, 멕시코를 방문하는 출장객은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일반 시내 택시는 가능한 한 타지 말 것
 -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반드시 공항 택시 티켓을 구입, 공항 택시 이용
 - 호텔에서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장소에는 콜택시(Sitio/씨띠오)를 요청
 - 지역마다 콜택시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부를 수 있는 전화번호는 5660-1122임
 - 공유 택시 애플리케이션(Uber, Didi 등)은 비교적 안전한 편임
- 호텔에서 상담 또는 관광에 나설 경우 귀중품은 프런트나 금고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현금만 소지하는 것이 좋으며, 약간의 비상금을 별도로 챙겨 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야간 중 시내 배회 절대 금지
- 안전지대 호텔 투숙
 - 시내 골목길 근처 호텔 투숙 자제, 안전지대 대로변 호텔 투숙
- 거리에서는 절대로 지갑이나 현금을 내보이지 말 것

한편,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멕시코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으로 지정(2020. 3.23.~ 별도 공지시 까지)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해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는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한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해둔다.

2)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다.

3) 응급 전화번호(범죄신고, 화재신고, 앰بول런스 등 911)

① 사건·사고 관련 통역서비스

◦ 외국인 사건 전담 검찰지청

- +52-55- 5345-5219, 주소 General Gabriel Hernandez 56, 3er piso, Col. Doctores, Del. Cuauhtemoc, CDMX
- +52-55-5786-0696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제1 터미널 내)

◦ 사건·사고 신고 및 상담 전화

- +52-55-5533-5533 (멕시코시티 / 영어 소통 가능)

②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Lopez Diaz de Armendariz 110, Col. Lomas Virreyes, Del. Miguel Hidalgo, CDMX

◦ E-mail: emcorea@mofa.go.kr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52-55-5202-9866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52-55-8581-2808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멕시코시티는 치안이 불안하여, 치안이 좋은 부유층 지역의 임차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안전한 지역의 월 임차료는 월 800~1,750 달러 정도이다. 아파트 크기는 보통 150~300m²이며, 한국 평수로 약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작은 가정부용 공간, 침실 및 화장실, 세탁실, 창고를 제하면 실제로는 침실 2~3개, 작은 거실 겸 식당 1개, 부엌 1개, 화장실 2개 정도의 규모다.

멕시코에는 치안이 불안한 서민 거주지 지역을 빼면 주택 규모가 상당히 큰 편으로 500m² 규모의 주택도 많다. 주택 임차 시 부동산을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개비로 보통 1개월분 임차료를 지급한다. 주택 임차료는 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며, 미화 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미국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시 임차 보증금은 보통 1개월분 임차료를 내며(계약별로 상이함) 계약 해지 시에는 반환하게 되어있으나, 각종 수리원상복구비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대부분이며, 가구가 구비된 경우에는 임차료가 10%~20% 상승하며 계약 해지 시 가구 손상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멕시코시티는 계절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중 온화한 기후다. 그러나, 일교차가 심하며 주택에 별도 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일조량이 충분한 지 반드시 확인하며, 북향은 권장하지 않는다.

주택 임차 관련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플랫폼은 Inmuebles24, Vivanuncios 등이 있다.

<https://www.inmuebles24.com/>

<https://www.vivanuncios.com.mx/>

전화

멕시코 유선 및 무선전화시장은 민영화되어 Telmex, Maxcom, Totalplay, IZZI 등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Telmex가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Axtel의 경우, Televisa에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매각하여 IZZI라는 기업이 서비스 중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혹은 전화로 인터넷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설치 시 전화서비스(Internet + Telefonía)까지 함께 설치하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바로 신청한 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최종 확인을 하는 구조다.

Telmex 전화번호는 800 123 0321로 전국 공통이며, 웹사이트(www.telmex.com.mx)에서 신청가능하다.

IZZI 전화번호는 800 212 0600이며, 웹사이트(www.ftthdemexico.mx)에서 신청가능하다.

Maxcom의 경우도 웹사이트(www.maxcom.mx)에 접속한 후, Centro de Atención을 클릭해 지역별 고객센터센터에 전화로 신청한다.

Totalplay는 웹사이트(www.totalplay.com.mx)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화번호 800 510 0510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멕시코 전압은 산업용의 경우 100V 및 220V 두 가지를 사용하나, 가정용은 110V~127V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압기(승압기)가 필요하다. 한국 제품을 가지고 올 경우, 승압기를 사용해도 성능이 온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멕시코 전력사업은 1960년에 국영화됐는데, 전력 사정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며, 정전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식수

멕시코 수도물은 다량의 석회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처럼 수도물을 그대로 음용할 수 없다. 특히, 식수에 부적합한 물을 음용할 경우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식수는 생수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며 예민한 사람의 경우, 야채, 과일 등을 세척할 시에도 수도물 대신 생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 멕시코 대형슈퍼, 편의점, 소규모 식품점(Abarrotes)에서는 0.5~1.5리터의 식수용 생수뿐 아니라 요리 및 일상용도를 위한 대량의 20리터짜리 정수통물(Garrafn)도 판매한다.

주요 브랜드로 Santa Maria, Ciel, Epura, Bonafont, Nestlé 등이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멕시코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볼보,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혼다, 닛산, 도요타 등으로 대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기아, 현대자동차 등 한국산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대리점이 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어 각자의 취향과 예산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차량가격

2021년 9월 기준 멕시코 내 대표적인 자동차 모델별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Nissan의 Versa는 14,045-17,945 달러, March는 11,395-15,395 달러이며 GM의 Chevrolet Aveo는 112,760-14,015 달러, Volkswagen의 Vento는 12,696-14,475 달러, Jetta는 17,850-21,1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2021년형 기준, 1달러당 20 페소) 자세한 차량의 구매가격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의 국내 및 국제 운전면허증은 일정 조건 하에 멕시코에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의 경우 "도로교통에 관한 규칙" 섹션B 제 1장 제44조에 '차량 운전시 국내 또는 외국 당국에서 발급한 해당 차량에 유효한 운전면허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 등의 외국 면허도 인정된다. 기간은 멕시코 입국 후 180일간이며, 한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똑같이 취급한다(체류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서 멕시코 입국 시 이민국에서 교부 받은 입국신고서 FMM이 필요함). 그 외 주에서는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간 인정해 주고 있다.

주의할 것은 외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는 있지만, 주별로 세부적 인정 범위가 다른 만큼, 각 주의 운전면허 발급 당국과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 차량(폴리마주)에 대해서만 면허를 인정하거나, 렌터카나, 미국 등에서 같이 잠시 타고 온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선 교통경찰들이 운전면허 발급 당국과 다른 부처 소속일 경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니, 반드시 멕시코 운전 면허증 취득 전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같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

현지 운전면허 취득은 무시험으로 수수료 납부 후 구매하는 형태다. 체류비자 및 거주증명서류(전화세, 전기세 납부 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 OXXO 등 편의점에서 미리 운전면허 취득 수수료를 납부 후 가까운 SEMOVI 지점을 예약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지 경찰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하여 벌금을 부과하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차량 구매 및 운전 등을 권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Citibanamex 은행: Citigroup 자회사로 멕시코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은행
- BBVA Bancomer 은행: 멕시코 내 자산규모 1, 2위를 다투는 대형 은행
- Santander: 스페인의 은행으로 멕시코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
- 신한은행: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멕시코 법인 개점
- KEB 하나은행: 2019년 5월 국내 금융사 중 두 번째로 멕시코 법인 개점

계좌 개설방법

멕시코에 설립된 법인 및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취업이 가능한 단기거주비자(Visa para Residentes Temporales) 및 영주권(Visa para Residentes Permanentes)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대출상품 및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최소한 2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필요하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사업자등록증(Acta Constitutiva), 소유권 및 영업 등록증(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y del Comercio) 사본. 상기 등록증의 변경 시 변경내용 사본 포함
 - 위임자 지정서류 사본. 위임자는 대출계약서에 사인함.
 - 법인대표, 위임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 사본 제출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금융정보 제출

- 재무제표를 포함한 법인의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대출은행에 따라 3년간의 내역서, 혹은 최근 90일 이내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가장 최근의 연간 세무신고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 계좌 개설 시 개인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신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대출신청에 적합한 비자(취업 가능 단기거주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제출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최근 연간 세무신고내역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 * 사본인 경우는 원본을 지참해 대조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American School Foundatio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커리큘럼	Primary Years Programme (PYP), Middle Years Programme (MYP), the Diploma Programme(DP) 총 3 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학비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월별 학비 유치원: 18,190 페소 (약 909달러) 초등학교 1~5학년: 23,515 페소 (약 1,176달러) 중학교 6~8학년: 25,410 페소 (약 1,270달러) 고등학교 9~12학년: 25,960 페소 (약 1,298달러)
홈페이지	https://www.asf.edu.mx/

〈자료원 : American School 홈페이지〉

- 현지학교

o 재 멕시코 한글학교

도시명	멕시코시티
커리큘럼	만 4세 이상 유치부반(다람쥐 1,2반, 돌리반, 공룡반), 초등부(1~6학년), 중등부(1~3학년), 다문화반(은하수 2,4반)과 현지인반(아리랑 1~3반) 등 총 19개 반을 운영
학비	입학금 1년에 400페소(약 20불), 학비는 월 500페소(약 25불)이며 중등부는 월 600페소(약 30불)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ksim2010/www/data/data/list.htm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마. 병원

o Angeles del Pedregal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Camino de Sta. Teresa 1055, Heroes de Padierna, C.P. 10700, CDMX, Mexico
전화번호	+52-55-5449-5500
진료과목	알레르기, 심장병, 위장병, 신경, 정신병 등

○ 서울클리닉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Londres #227, Juarez, Cuauhtemoc, CDMX
전화번호	+52-55-5208-5448
진료과목	감기, 피부병, 위장염 등
비고	문장호 원장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El Palacio de Hierr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Moliere 222, Polanco, Polanco II Secc, C.P. 1155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elpalaciodehierro.com/
비고	멕시코 최고급 백화점으로, 전국에 2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남성용품, 여성용품, 신발, 향수 및 액세서리 섹션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버버리, 에스티로더, 지방시, 구찌 등이 있다.

○ Liverpool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enida Cuauhtemoc 462, Piedad Narvarte, C.P. 0302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liverpool.com.mx/tienda/home.jsp
비고	중, 고소득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명품 백화점과 미식가 식당을 운영하는 멕시코의 백화점 브랜드이다.

○ Centro Santa Fe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Vasco de Quiroga 3800, Lomas de Santa Fe, Contadero, C.P. 05109,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centrosantafe.com.mx/
비고	신도시 산타페에 있는 쇼핑몰이다.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식품점

○ Walmart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Insurgentes Nte. 131, Buenavista, C.P. 06300, CDMX, Mexico
취급 식료품	멕시코 음식, 아시아 음식, 미국식 음식 등

○ A-Mart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Calle Rio Tiber 71, Cuauhtemoc, C.P. 06500, CDMX, Mexico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 Mikasa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San Luis Potosi 173, Roma Nte., C.P. 06700, CDMX, Mexico
취급 식료품	일본 식료품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바스콘셀로스 도서관(Biblioteca Vasconcelos)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Mosqueta, Eje 1 Nte. S/N, Buenavista, C.P. 0635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bibliotecavasconcelos.gob.mx/
소개	멕시코의 국립 도서관장을 역임한 호세 바스콘셀로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그의 난해한 구조 덕분에 인터스텔라 도서관으로도 불린다. 큐브형의 구조물이 서로 얹혀 있는 사이로 거대한 공룡의 골격이 전시되어 있다.
비고	현재는 쿠아우테묵(Cuauhtémoc) 구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센터로 활용 중이다.

○ 씨네폴리스(Cinepolis) 영화관

도시명	전국
주소	Calle Juan Aldama 187, Buenavista, C.P. 06350 Buenavista,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cinepolis.com/

소개	2021년 기준 Cinepolis는 124개 도시에, 477개의 지점을 보유하여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영화관 체인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	--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2-01-01	신정(Ao Nuevo)
제헌절	2022-02-07	제헌절(Aniversario de la Constitucin Mexicana), 원래 2.5(금)이나 앞당겨 시행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2022-03-21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Natalicio de Benito Jurez)
노동절	2022-05-01	노동절(Da del Trabajo)
독립기념일	2022-09-16	독립기념일(Aniversario de la Independencia 1810)
혁명기념일	2022-11-21	혁명기념일(Aniversario de la Revolucin Mexicana), 11.20(토)이나 미뤄서 시행
성탄절	2022-12-25	성탄절(Navidad)

〈자료원 : 현지 언론 자료 종합〉

10. KOTRA 무역관 안내

○ 중남미지역본부 및 멕시코시티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Col. Cuauhtemoc, CDMX, C.P. 06500
- 전화번호: +52-55-5514-3173 / 3174
- 이메일: mexico@kotra.or.kr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mexico%20city/KTMIUI010M.html>

공항-무역관 이동

멕시코시티국제공항에서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E홀)을 나오자마자 E홀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는 공항 택시 쿠폰 판매소(Taquilla de Taxi: 따끼야 데 택시)로 이동해 쿠폰을 구입, 공항 건물 밖의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이용해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대략 20달러 선이며, 공항 택시는 등록된 택시(Taxi Autorizado)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공항 택시 이용이 어려울 경우 UBER, DiDi 등 공유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멕시코시티의 일반 택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UBER, DiDi 등을 사용한 등록자라면 바로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규 사용자는 전화번호 인증 등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

무역관은 현지에서 코리아타운으로 유명한 ZONA ROSA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립기념탑인 Angel de la Independencia 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다.(도보 5분 소요)

무역관이 소재한 건물은 멕시코 증권거래소 (Bolsa de Valores, 대형 지구본 모양의 건물) 바로 옆의 Reforma 265 라 불리는 Axtel 빌딩으로, 우리 무역관은 동 건물의 2층(한국식으로 5층)에 위치하고 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객용 출입증을 제공해 주며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mexico@kotra.or.kr)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